

Nonsan Culture Quarterly Magazine

논산 문화

2013 **신년호** VOL.126

 **논산문화원**
<http://nonsan.cult21.or.kr>

문화재 바로 알기 - 명부전에 가득찬 신들
조선왕조실록 속의 논산 - 백성의 살림을 살피는 임금님
선인들의 삶과 지혜 - 호연지기를 꿈꾼 여인, 김호연재!
논산의 꽃 - 겨울을 이겨내는 자연의 힘 - 겨우살이

새 해

김영란

보리는

추운 날씨에 싹을 틔우고
민들레 냉이 달맞이꽃
잎과 뿌리 살아 있는 채로
땅에 엎드려 차가움 견뎌내더니
눈부신 청명한 아침이 온다.



글쓴이 약력

- 노산 출생 「창조문예」 추천으로 등단,
- 시집으로 「사랑을 연습하세요」가 있음
-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출강,
- 노산시YWCA이사, 꿈샘어린이집 원장

신년

Nonsan Culture Quarterly Magazine 2013_신년호 Vol.126



Contents

- 권두시 - 새해 / 김영란
- 권두칼럼
- 04 문화의 의미와 지배 / 고현정(논산문화관광해설사회장)
- 권두논단
- 06 한류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 진헌수(드라마작가, 건양대학교 외래교수)
- 문화원장이 들려주는 논산이야기
- 10 강경과 우암 송시열 선생 / 류제협(논산문화원장)
- 문화재 바로 알기
- 12 명부전에 가득찬 신들 / 홍재선(연재문화연구원소장)
- 무형문화재의 세계
- 14 전통 기와의 맥을 이은 제와장 / 이숙실(논산문화 명예기자)
- 세계 문화유산 알아보기
- 16 전통이 살아 있는 세계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 / 류화엽(논산문화 명예기자)
- 포토에세이
- 18 건강을 위한 덕담 / 황호신(사진작가)
- 조선왕조실록 속의 논산
- 22 백성의 살림을 살피는 임금님 / 정경일(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 선인들의 삶과 지혜
- 24 호연지기를 꿈꾼 여인, 김호연재! / 정연봉(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 현대시산책
- 26 천형의 시인 한하운 / 이재훈(시인, <현대시> 부주간)

- 생활속의 그림찾기
- 28 온몸으로 근대의 벽을 허문 불꽃의 여류화가 - 나혜석 / 우대경(논산문화 명예기자)
- 향기로운 고전 산책
- 32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남성으로 평생을 살다간 여성영웅 이야기 / 김정녀(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수)
- 세계문화야보기
- 34 열정과 긍정의 나라 파라과이 / 박상구(논산문화원 회원)
- 논산의 꽃과 풀
- 38 겨울을 이겨내는 자연의 힘 - 겨우살이 / 이명식(논산문화원 회원)
- NEWS 화보
- 39 문화원 소식
- 41 내고장 소식
- 공연 리포트
- 43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는 음악회 / 박정임(논산문화 명예기자)
- 문화인에게 권하는 한권의 책
- 44 손님 / 이금미(남부평생학습관 사서)
- 45 실패의 향연 / 이금미(남부평생학습관 사서)
- 알콩달콩 한마당
- 46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 웬퍼둥(베트남, 논산YWCA회원)
- 47 문단
- 53 청소년 마당
- 63 문화행사소개



표지 이야기 - 등록문화재⑤
강경화교학교 교사 사택
 등록문화재 제337호(2007년 7월 3일 지정)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34-1
 강경화교학교는 1956년 건축된 건물로 교사 1동과 관사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동은 복도를 전면에 둔 편복도 형식의 목조건물로 전면 중앙에 흰색의 아치형 출입구가 있다.
 표지사진 : 이준창(사무국장)

편집위원

정경일 / 건양대학교 교수
 권선옥 / 시인, 연무고교장
 이충무 / 건양대학교 교수

김동선 / 논산시 문화예술담당
 이복희 / 논산여상 교사

2013. 신년호 Vol. 126

발행 / 2013. 1. 2 발행인 / 류제협 발행처 / 논산문화원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70(내동 279-4)

Tel. 041-732-2395 Fax. 041-732-2394 http://nonsan.cult21.or.kr

편집 · 디자인 / 북커뮤니케이션 Tel. 042-486-2725 Fax. 042-483-2726

※ 이 책은 논산시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습니다.

문화의 의미와 지배



고 현 정 _ 논산문화관광해설사회장



현대사회를 문화의 시대라고 통칭하기도 한다.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 중이다”는 말에서 문화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타일러의 정의를 보면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이다”라고 광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문화는 우리의 삶과 가치관 모든 것의 총체일수 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인간 삶의 총체적인 산물 또는 의미 있는 문화의 재해석과 여가문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스토리텔링의 전문가

글로벌 사회에서 문화는 국가의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과 경쟁력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미 보아 왔듯이 스타워즈와 주라기 공원에서 시작하여 해리포터를 거쳐 아바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공한 영화 한편이 한 국가의 예산과 맞먹는 수익을 내는 것을 보아도 문화의 가치와 경제효과는 가히 상상을 뛰어 넘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부르는 속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것들은 모두 이야기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공한 이야기 속에는 인종과 국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힘이 있고 그것이 바탕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심청전을 들으며 눈물 흘리고 흥부전을 읽으며 놀부의 못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릴 때 주위의 외국인들이 보이는 반응도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으면서도 우리는 동일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다름 아니라 한 국가의 문화와 역사의 스토리에 상품성이 부합되면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이라고 인식한다. 여고시절 로렐라이 언덕의 노래를 부르면서 동경했던 독일의 문화. 닉새니얼 호손의 “큰 바위 얼굴”등 작은 이야기로 끝날 것 같지만 어릴 적의 감성으로 인해 그 나라에 갈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되고 그 의미를 알고 여행의 참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논산 유학으로 힐링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논산에서의 몇 년간의 문화해설을 하면서 느낀 바는 사회의 정신적인 성장보다는 물질만능주의의 아노미현상으로 인해 자살율, 이혼율, 실업률 등 긍정적인 방향과는 다른 현실이 정체성의 혼란과 위계질서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 시대의 기호유학의 발생지였으며 사계예학의 중심인 논산이 21세기의 인문 철학 사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시발점임을 깨닫고 철학적 가치를 어떻게 상품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을 했다

힐링의 시대, 돈암 서원이 조선예학을 힐링 예학으로 만들어 냄으로서 대한민국의 심리치유 관광 산업과 바른 품성 교육의 중심지가 되길 원하는 바람과 더불어 우리 논산의 해설사들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백성을 교화시킨 것처럼 상당부분 왜곡 되어 있는 조선 유학자들의 정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힐링 예학에 일조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화관광의 무한한 영역을 새롭게 인식하며 독자들의 재해석을 기대해 본다.

권두논단-한류의 새로운 아세아 ①



한류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진 현 수 _ 드라마작가, 건양대학교 외래교수

말 그대로 한류 전성시대다. 한국문화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들 드라마, k-pop, 영화, 게임 등이 한류라는 거대한 이미지의 틀 안에서 기획되고 생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보다 한층 더 세밀화된 프리-프로덕션단계에서의 한류 소비층 분석은 그야말로 작품과 콘텐츠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게 했고, 그렇게 생산된 콘텐츠는 동아시아 전체는 물론 유럽과 중동에게까지 수출되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업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류는 중국인이 지어준 말

사실 '한류(韓流)'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다. 영어로는 '코리안 웨이브(Korean wave)'라고 하지만, 다른 외래어

처럼 영어권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다. 알다시피 ‘韓’은 ‘한국’, ‘流’는 ‘흐른다’는 뜻으로, 한자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생겨난 말로 한국의 대중 문화와 연예인에 열광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신조어였다. 요즘에야 K-pop 아이돌 음악이 한류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한류의 시작은 TV드라마로부터였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한 후 최진실과 최수종이 주연한 드라마 <질투>가 중국으로 처음 수출되었다. 그리고 이 심플한 트렌디 드라마 <질투>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젊은이들의 도시감성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드라마 <질투>는 대한민국 최초 트렌디 드라마라 불리는 작품이지만 대체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는 일본드라마 <동경러브스토리>에 기원하는 것이 사실이다. 낮간지럽게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경구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한편의 드라마가 한류의 씨를 심는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주자는 국내에서도 평균시청률 59.6%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다. 오늘날 <사랑이 뭐길래>는 이후 일본에서 메가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겨울연가>와 함께 동아시아 전체에 한류의 불길을 지피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한 드라마였던 이른바 윤사마 배용준이 주연한 <겨울 연가>는 일본인 중장년층들의 향수 의식을 자극하여 일본 자국내에서만 23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대성공을 거둔다.

이와 같은 작품들로 한류는 해외로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급기야 불세출의 성공작 <대장금>이 전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남미, 유럽에까지 진출 하면서 한류는 순풍에 돛단 듯 즐기 찬 성공을 거두며 <커피프린스>, <아이리스> 등 후속 히트작을 끊임없이 양산하며 지금까지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순항 중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이러한 한류를 주도한 한국 드라마의 수출열풍은 국내의 무분별한 기획사 난립을 유도했고 스타만을 내세워 만들어진 허술한 스토리의 드라마들은 한류라는 삼국시대 이후 우리 민족이 처음 접한 문화주도현상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한류에 관한 비판론, 즉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 드라마의 위상과 함께 한류도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다.





드라마에 이어 K-POP이 한류를 주도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얼마 안 가 한류는 이전보다 더한 광복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요, K-pop이었다. K-pop은 대한민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유행 음악을 총칭한 이름이라 볼 수 있다. 영미권의 대중음악을 팝(pop)이라고 부르고, 영미권 이외의 국가의 대중가요도 국가 이니셜을 붙여 나타내는 데서(예를 들면 태국 : T-pop, 일본 : J-pop, 중국 : C-pop)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 대중가요가 해외에서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된 이후 K-pop이라는 명칭은 거의 고유명사화 돼가고 있는 추세다.

신문과 방송 및 포털까지 접수한 K-pop과 이를 주도하는 대형 연예기획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아이돌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이 된지 오래다. 그만큼 오늘날 K-pop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문화콘텐츠의 절대강자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SM, JYP, YG 등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기의 끼가 있는 연습생들을 선택적으로 스카웃하여 수년간 트레이닝을 통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키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수년간의 연습을 통해 완성된 아이돌들은, 기획사에서 노래, 춤, 외국어까지 마스터하여 한류에 탑승할 모든 준비를 끝마친다. 기획사는 완벽히 준비를 통해 기대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거기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시킨다. 여기에 더해 기획 단계에서 외국인 멤버의 영입을 통해 적극적인 세계시장 공략을 도모하기도 한다.

대만에서 63주 연속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운 슈퍼주니어, 일본 오리콘차트 1위의 소녀시대, 미국 빌보드 차트 40위권 대의 원더걸스, 그리고 빌보드 차트 2위는 물론 전세계 음악시장을 석권한 PSY의 <강남스타일>등. 우리나라의 많은 가수들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각국의 가요차트를 석권하고 있으며 명실 공히 이제 K-pop은 한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일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당당히 서게 된 것이다.

K-pop과 드라마가 한류의 중심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바람은 단순히 수익창출에만 그



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여 주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인 자체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바꿔놓는데 한몫을 했다. 세계의 시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으며, K-pop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의료분야 역시 한류 열풍의 한 주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 국내 환자들 대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은 높아진 국내 소비자들에 눈을 맞추기 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것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한류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지속 성장을 좌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류의 성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한류를 확장시킬 만한 콘텐츠는 여전히 드라마와 가요에 국한돼 있다. 이는 한류를 지속시킬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콘텐츠 업계의 경쟁력 역시 대형기획사들의 횡포와 불투명한 경영으로 인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형 기획사 몇몇만 배가 부른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과도하게 기획사들의 기획력에만 의존하는 양상이 확대되면서 세계인의 감성에 자리잡아야 할 한국문화가 소비형상품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콘텐츠의 원(原)소스를 담당하는 창작자들의 창의적 동력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이미 몇몇 스타와 대형기획사의 그늘에 가려 열악한 노동조건과 보장되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한류 콘텐츠를 만드는데 일조해 온 스태프들의 불만 역시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더불어 한류현상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점령 내지 정복한다는 식의 접근으로 이해하는 언론의 문화 제국주의적인 편협한 시각도 문제다. 이미 여타의 나라들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혐한류 혹은 반한류의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미 한류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는지 오래다. 앞서서 이야기한 음악, 드라마, 의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상품 하나하나가 한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류가 커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몇 년후에 한류열풍이 점점 더 거세질지 아니면 한번의 바람으로 그칠지는 우리에게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강경 황산의 팔괘정

강경과 우암 송시열 선생

류 제 협 _ 논산문화원장

어느 문화유적지를 찾아 갔을 때 거기서 자기의 선조가 남긴 글을 마주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기분일까? 강경 황산의 팔괘정에는 유려한 필치의 시액(詩額)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시는 원래 호곡 남용익(南龍翼:1628~1692)이 1663(계묘)년에 당시 팔괘정을 짓고 있던 우암 송시열선생을 찾아뵙고 시를 한수 지어드린 작품이다. 우암선생은 이를 시액으로 만들어 팔괘정 현판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만 60년이 지난 1723(계묘)년에 남용익의 손자인 남한기(南漢紀:1675~1748)가 팔괘정에 들러 자기 할아버지께서 지은 시를 새겨 걸어놓은 시액을 마주하게 되었다. 시액은 비바람에 낚아서 글자가 이지러지고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글자를 어루만지며 감격하고 심히 가슴 아파 하였다. 이를 본 죽림서원의 유림들이 남한기에게 시액을 다시 써서 걸자고 의논하였다. 그러나 남한기는 자기는 할아버지의 글씨에 누를 끼칠까 두렵다고 사양하면서 이 고을에서 글씨를 잘 쓰는 분에게 부탁하여 다시 만들어 걸자고 했다. 그래서 지역의 한 분이 글씨를 써서 시액을 다시 만들어 걸게 된 것이다. 즉 현재 걸려있는 시액은 경종3년(1723 계묘)에 다시 만들어 건 것으로 다음페이지의 사진과 같다. 그 내용을 번역과 함께 아래에 보인다.

癸卯九月之望歷謁

계묘구월지망역알

尤齋先生于黃山之僑舍陪遊

우재선생우황산지교사배유

寄亭新基 臨名山大江

기정신기 臨名山大江

계묘(1663)년 구월 보름에 찾아뵙고

우재(우암)선생께서 계신 황산의 거처로 찾아뵙고

새 정자 터를 함께 살펴보니 명산대강을 아우르고 있어

眞是宇內奇觀也

진시우내기관야

酒後先生吟詩成屋未就之句

주후선생음시정옥미취지구

徵出語甚勤慈敢不揆荒僭退

징출어심근자감불규항참퇴

而錄 五言近體一首敬呈 座下

이록오언근체일수경정 좌하

(이 부분까지는 시를 짓게 된 연유를 밝힌 글이다.)

水似三江闊山如九曲佳

수사삼강활산여구곡가

地曾慳勝境天卽餉尤齋

지중간승경천즉향우재

老樹因成柱層巖自作階

노수인성주층암자작계

平生仁智樂從此宿心諧

평생인지락종차숙심해

宜春 南龍翼 再拜 敬稿

의춘 남용익 재배 경고

실로 세상에 뛰어난 경관이었다.

술이 지나하게 된 후에 선생께서 '시성 옥미취' 시구를 읊으시고

나에게 시 한수를 부탁하시니 나는 너무나 황송하여 잠시 물러나

오언근체시 한 수를 지어 선생님 앞에 정중히 드렸다.

강 쪽은 삼강평원처럼 광활하고 산은 무이구곡처럼 아름답네

지신(地神)은 일찍이 이런 경승지를 아껴뒀고 하늘은 이를 우재선생께 베푸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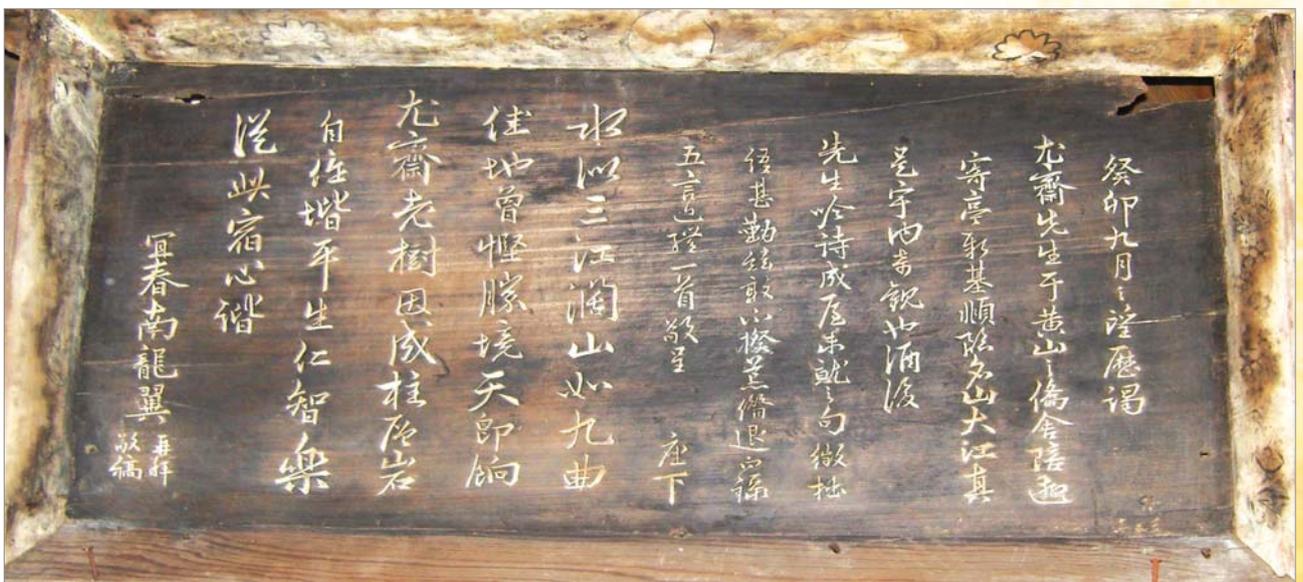
오래된 좋은 나무로 기둥 삼으니 층층이 쌓인 바위는 자연히 계단 되었네

평생 산수 즐기며 사셨으니 이제는 이를 따라 평안하고 안락하게 지내소서.

의춘¹⁾ 남용익 재배 후 삼가 글을 올립니다.

이 시는 팔괘정을 지을 당시의 주변 정경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팔괘정의 건립연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시를 근거로 1663년을 건립 연대로 추정하고 있다.

한문의 번역은 한학자 慶山(경산) 朴聖基(박성기)선생의 지도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제게 있으니, 강호제현의 지적과 지도를 기다립니다.



팔괘정에 걸려있는 시액, 3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액자는 낡았으나 글자는 또렷하다.

1) 의춘(宜春): 의령(宜寧)의 옛 이름으로 여기서는 남용익의 본관 즉 의령 남씨를 말한다.



양촌 쌍계사 명부전

명부전에 가득찬 신들

홍재선 _ 연재문화연구소장

우리나라 사원에는 신들도 많고 많다. 그래서 사원입구로 들어갈 때부터 되돌아 나올 때까지 많은 예배의 행위인 절을 한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절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지난번호에서 절 입구의 외호신인 인왕(仁王)과 사천왕(四天王)을 말하고 불전에 이르면 대승불교의 여러 불상이 있으며 중앙에 모셔진 부처님의 명칭에 따라서 그 전각의 이름이 달라지는 내용까지를 말하였다.

이번에는 명부전(冥府殿)에 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명부전의 다른 이름으로는 영원전(靈原殿)이라고도 하는데 이 불전은 주변의 지장전이나 시왕전과는 엄밀히 구별된다.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후에 내세불인 아미타불에 의하여 다음 생명을 부여받는 기간은 7~7²일이다 이런 연유로 49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여러 불상과 특히 보살의 등장은 불교의 본질인 불국정토를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영혼을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하여 현세의 석가여래(釋迦如來), 미래의 미륵불(彌勒佛)의 교화에도 불국토로 가지 못한 많은 영혼을 위하여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존재한다.

이런 인과론에 의한 논리적 불교의 교리가 동북아에 전래 되었을 때 이곳에서는 응보의 원리에 충실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당시의 신들은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 주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기도나 제사에 소홀함이 있으면 노여움과 화를 주는 무서운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었다. 더구나 살아 생전의 죄 값은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보답,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신앙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연유로 불교가 이 지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통신앙과 마찰, 타협을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찰에 산신각, 칠성각 등이 만들어지고 명부전이 있게 된다.

특히 중국에는 전통 내세보복 신앙인 10왕을 모시는 시왕전(十王殿)이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750년 당(唐)대에 도명(道命)이라는 승려가 생전의 죄 값을 죽은 후에 치루게 하는 10왕의 모습을 그린 지옥도를 마련하고 이 10왕을 통제하는 존재로 지장보살을 안치하여 이제까지의 지장전과 다른 죄과를 치른 후에 부처의 세계로 가는 체계를 마련하여 명부전(冥府殿)이라 이름하였다. 근본 불경은 지장경 또는 시왕경 등이 중심이 된다. 불화(佛畵)의 경우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주로 지장보살탱화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명부의 열명의 대왕과 지옥의 판관, 녹사, 사자, 결박된 죄인의 형벌을 받는 모습들을 묘사한다.

10명의 왕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왕은 다섯 번째인 염라대왕(閻羅大王)이다. 염라대왕은 죽은 사람의 일생을 거울에 비춰보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죄를 판단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첫 번째 진광대왕(秦廣大王)은 살생죄를 다스리고, 두 번째 초강대왕(初江大王)은 도둑질한 죄, 세 번째 송제대왕(宋帝大王)은 간음한 죄, 네 번째 오관대왕(五官大王)은 망언과 함부로 말한 죄, 여섯 번째 변성대왕(變成大王)은 뉘우침이 없는 죄를 다스린다. 일곱 번째 태산대왕(泰山大王)은 염라대왕의 보좌역이고, 여덟 번째 평등대왕(平等大王)은 영가 100일을 관장하며, 아홉번째 도시대왕(都市大王)은 죄업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며 마지막으로 오도전륜대왕(五都轉輪大王)은 참회자의 태어날 곳을 결정하는 일을 한다.

이 10왕은 불교의 근본교리 10업(業)과 밀접하여 몸(身)·입(口)·뜻(意)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 그리고 그 인과를 의미하는데, 업은 짓는다는 말로 신업(身業 : 殺生, 偷盜, 邪淫), 의업(意業 : 貪心, 嗔心, 癡心), 구업(口業 : 兩舌, 綺語, 妄語, 惡口) 등 10종류이다.

사원에서 전각의 위계로 보면 부처님이 계신 금당(金堂)을 상신당(上神堂)이라 한다면 이보다 낮은 하신당(下神堂)의 지위에 있고 이 명부전은 고려, 조선시대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삶을 영위하던 민중의 여원, 바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염라대왕



명부전 내부의 여러 왕들



독사지옥도



무간지옥도



용문암막새

전통 기와의 맥을 이은 제와장

이숙실 _ 논산문화 명예기자

한옥의 지붕에는 어디에도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와지붕이 지니고 있는 고아한 멋은 하늘을 향해 용틀임하는 듯한 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 특히 처마의 절제된 균형미와 유연한 곡선미는 아름다운 선(線)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렇게 한옥의 아름다움이 가능한 것은 '기와'가 큰 몫을 차지한다.

멋과 위용을 갖춘 처마의 높은 공간은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막아 시원하게, 겨울에는 햇볕이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 따스하게 하는 등 자연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과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조상의 지혜는 장인에 따라 기법을 달리하는 수막새와 암막새 등 다양한 문양의 기와를 만들어 사용해왔다.

원래 기와는 지붕에 빗물이나 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흘러내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지붕 밑 목재의 부식을 방지하고 동시에 건물의 모양을 잡아주고, 건물을 치장하는 용도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와를 만드는 이를 '제와장(製瓦匠)'이라 한다. 한형준(83) 제와장(製瓦匠)은 기계를 들여 기와를 구워낼 수도 있었지만, 전통 재래기법을 고수했던 장인으로 올림픽이 있던 1988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91호로 지정 받았다.

우리나라 기와의 역사는 기원전 2~1세기경 중국 한(漢)대에 대동강 유역으로 먼저 들어와 차츰 전 지역에 퍼져 지금에 이르렀다.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가 있으며, 부속장식 기와로는 암막새와 수막새, 귀면기와, 치미, 용두, 망와 등이 개발되었다. 기와 소성은 가마의 형태나 구조 그리고 소성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철의 동파를 막기 위해 대개



연화문 막새 세트



돈암서원 외삼문의 강(剛)자 망새

섭씨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진다. 불을 때기 시작해서 사나흘이 되면 '막음불' 을 하여 불 온도를 가장 높이 올리고, 가마 입구를 막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이 불 색깔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해서 '불을 본다' 는 말이 나왔다. 제와를 배우기 시작해서 불을 '보는' 데까지는 보통 수년이 걸린다. 한 제와장도 혼자 불을 때고, 보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야말로 '눈대중' 으로 불을 조절해야 하는 제와 기술의 핵심이다.

2008년 국보 1호인 송례문이 방화로 소실되면서 국내 문화유산의 보존·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재래 기법과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이 주목받게 되었다. 송례문 복원에는 전통 기법대로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붕에 올릴 2만2000장의 기와는 한 제와장의 지휘 아래 부여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3월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돈암서원(사적 제383호)에는 10여동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 지붕에 있는 망새에는 다양한 문양과 글씨가 새겨져 있다. 논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망새로 추정되는 정회당의 건물 망새를 보면 '만력 45년 정사 4월(萬曆 45年 丁巳4月)' 로 서기 161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송례사와 사당에 남아있는 암막새 30여장의 '송정6년 2월 일 서원(崇禎6年 2月 日 書院)이라는 글씨로 보아 1631년 사계 김장생선생 장례를 마친 뒤 서원을 짓기 시작하여 3년 후인 1634년 초에 완공하여 그해 5월에 위패를 봉안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송정6년(1633년)이 새겨진 기와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돈암서원이 세워질 때 서원용으로 만들어진 기와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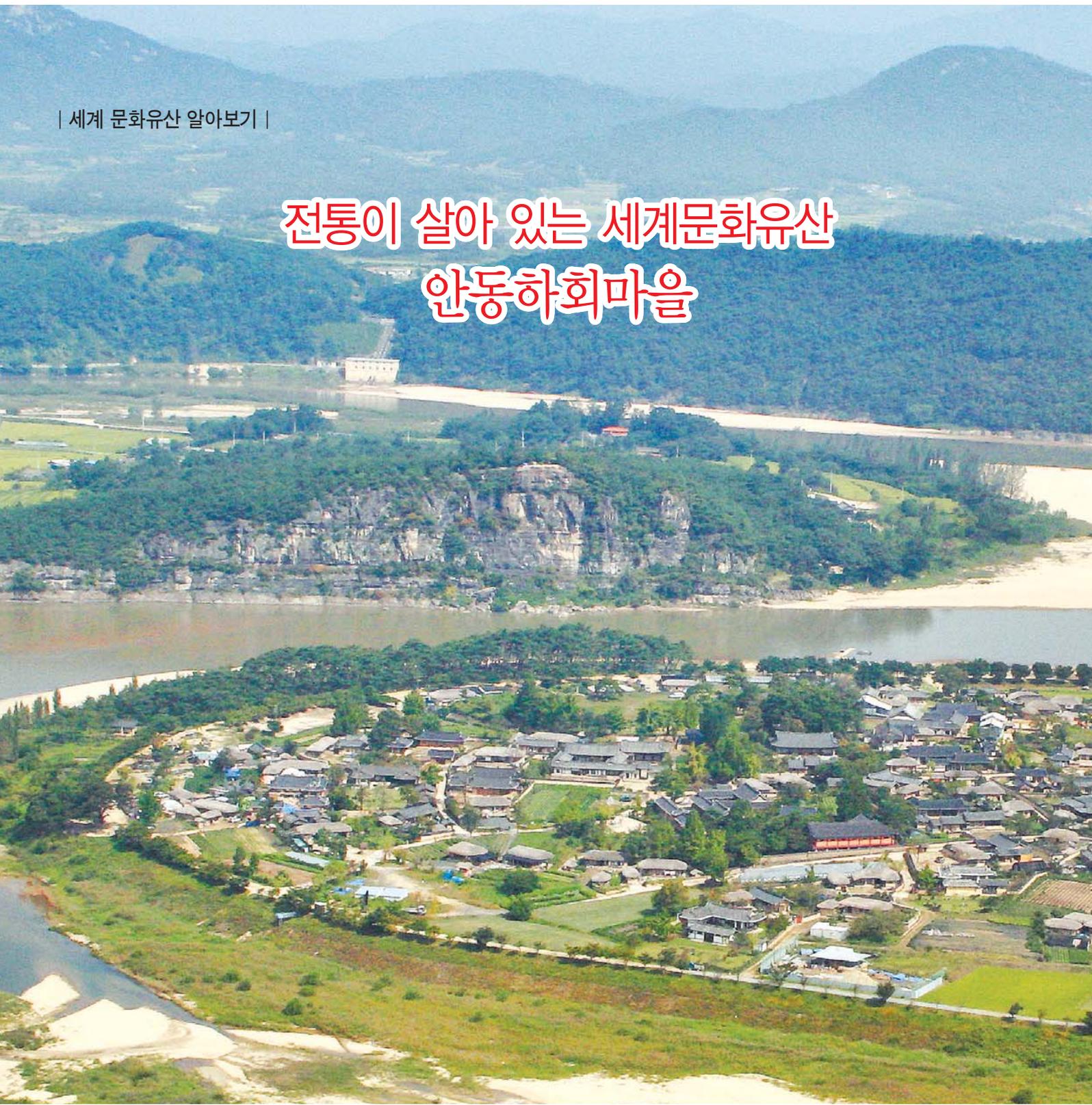
송례문 복원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기와의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고 문화재청의 '전통 기와 및 전돌 생산 활성화 방안' 을 따라 문화재 보수공사에 전통 기와가 쓰이게 된다.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우리의 전통의 맥(脈)이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형준 제와장

전통이 살아 있는 세계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



류 화 엮 _ 논산문화 명예기자

안동 하회마을은 한국의 대표적 동성(同姓)마을로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문화와 고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하회(河回)라는 마을이름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하회마을은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이며, 2010년도 세계문화유산이 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안동하회마을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고,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

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로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었다. 하회마을은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방문, 신발을 벗고 오른 것으로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진 곳이다.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인 안동하회마을은 와가(瓦家:기와집)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으로 유명하다. 씨족마을은 조선시대(1392~1910)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대표적 씨족 마을이면서 양반마을인 하회마을은 조선시대 양반문화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한반도 동남부(영남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며, 서애 류성룡 선생의 징비록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마을의 좌향이 한국의 집들은 정남향 또는 동남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회마을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좌향이 일정하지 않다. 또한 큰 와가(기와집)를 중심으로 주변의 초가들이 원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600여년을 지나오며 집들 사이에 어떤 수많은 사연과 애환이 서려있었을까? 잠시 생각해 본다.

안동하회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 가지 전통체험을 할 수 있고, 고택에서 숙박을 하며 머물 수도 있고, 안동찜닭, 안동 간 고등어를 맛볼 수 있다.

안동하회에는 하회탈이 유명한데 서민들이 놀았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선비들의 풍류놀이였던 '선유줄불놀이'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안동?하회마을에서?12세기 상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을 겸한 탈놀이이다. 서민들은 탈놀이를 통해 지배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자신들의 억눌린 감정을 거리낌 없이 마음껏 발산했으며, 양반들은 그런 서민의 풍속을 끌어안으며 공존했다.

선비들의 풍류놀이인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시회(詩會)를 겸한 선유(船遊) 놀이로 음력 7월 초순에 선비들이 인근 시인묵객을 불러 행해졌다고 한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강 중앙에 배를 멈추고 술잔을 나누며 시를 짓는 놀이이다. 시간 안에 시를 지으면 낙화야 라고 크게 소리친다고 한다. 이와 때를 맞춰 잘 마른 소나무에 불을 붙인 불덩이를 절벽에 부딪쳐 불꽃을 일으키는 현대판 불꽃놀이인 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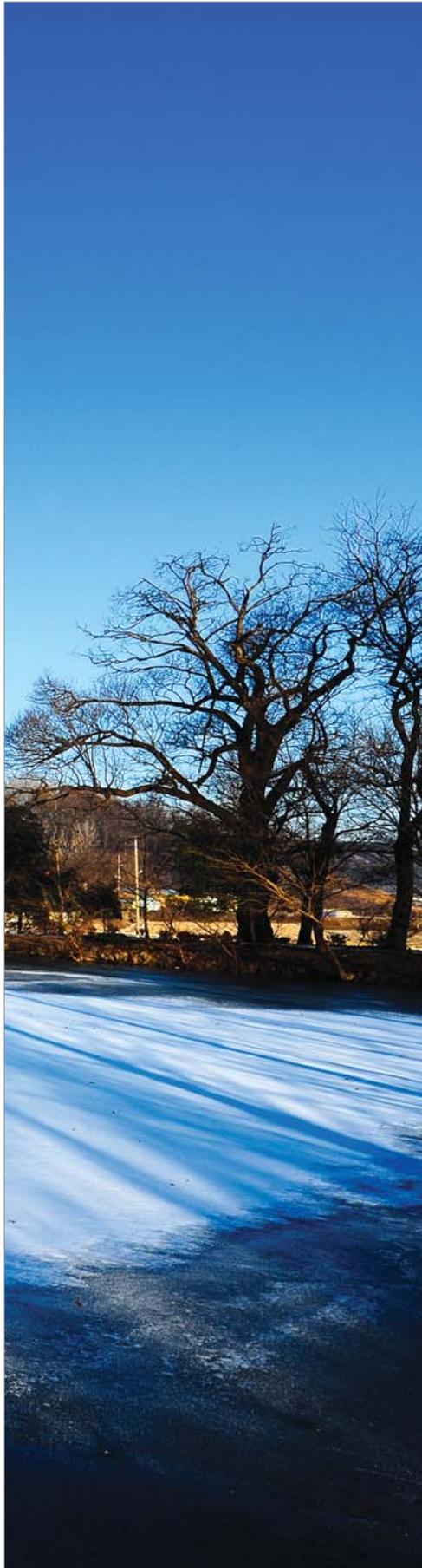
안동하회마을은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인 갓쇼즈쿠리(合掌造?)전통마을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통마을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너무 빨리 돌아가는 현대생활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고즈넉한 고택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도 멋진 일상에서의 탈출이 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될 듯싶다.



양반탈 · 각시탈





건강을 위한 덕담

글/사진 _ 황 호 신(사진작가)

올해도 어김없이 저마다의 희망과 비원(悲願)을 안고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으리라는 기대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부유하고 행복해지길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세시 풍습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빈번히 인용되어지는 덕담은 "새해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듯, 건강은 만복의 근원이다.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소원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원되어질 소망이다.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일주했다는 말과 같다. 시간을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나누어 표시하듯, 어쩌면 시간은 우주의 운행과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양이 멈추더라도 우리 몸속의 생체시계는 계속 똑딱거리며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정된 수명의 스톱워치인지도 모를 일이다. 우주의 운행이 곧 세상사이고 보면, 인간의 병은 세상사와 체내의 시계가 부조화를 이룰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의 모든 일은 외적인 요인이지만, 체내의 생체리듬은 내적인 요인이다. 이는 침입과 방어라는 질병과 면역의 생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계절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 이를 따라잡지 못할 때 면역력의 저하로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체내외의 조화로운 하모니가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메커니즘인 것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게 되듯, 건강이 있으면 질병도 있어야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인간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떠나 지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병원균도 지구의 생태계를 이루는 한 축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병원균을 적으로 간주하고, 수술과 약물로 몰살시키려 하는 것은 인간의 과욕이다. 또한 그럴수록 병원균이 물러나기는커녕 모습을 바꾸어 새로운 질병으로 인간을 찾아오게 마련이다.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화할수록 갖가지 성인병과 암 등으로 더 인류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수명증가는 연명에 불과하다. 질병도 인간과 공존해야 활동반자로 인정하고, 적절한 정도의 유지를 모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병증의 치유이자 질병의 관리가 아니겠는가.

얼마 전 모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두 그릇에 밥을 담아놓고 한쪽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등의 말을 하게하고, 다른 그릇의 밥에게는 '짜증난다.', '미워한다.' 등의 말을 하게 했다. 40일이 지난 뒤에 살펴보니 긍정적인 말을 해준 밥에는 하얗고 부드러운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냄새도 향기로웠다. 그러나 부정적인

포토에세이

말을 해준 밥에는 검고 역한 냄새를 풍기는 곰팡이와 더불어 밥이 썩어 있었다. 이는 모든 실험자에게 공통으로 관찰된 결과였으며, 축복의 말을 들은 밥은 발효가 된 반면, 저주의 말을 들은 밥은 부패가 되었던 것이다. 변화를 유발한 건 밥이 아니라 그 밥을 둘러싸고 있던 곰팡이였을 것이다. 몇 년 전에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사랑과 감사, 평화, 용서 등의 내용을 담은 말과 글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고 물의 결정사진을 찍었는데, 저주와 혐오, 증오 등의 말을 들려주었을 때와는 달리 결정이 고르고 아름답고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인간의 몸이 약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하면, 평소에 어떤 말과 글을 접하며 살아야 할지 분명해지는 실험이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더불어 살고 있는 병원균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고, 오로지 우리 몸에서 그 병을 떼어내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 병원균은 더욱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여 큰 병으로 발전할 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병에 대해 인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부지불식간에 물러나게 될 것이다. 암에 걸려 수술을 받거나 항암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기대했던 것만큼 생존율이 높지 않으나, 과감히 병원을 포기하고 자연과 함께 하며, 약초와 산나물로 식습관을 바꾸고, 인간사의 스트레스를 멀리한 사람들이 암세포를 몸에 지니고 살면서도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사례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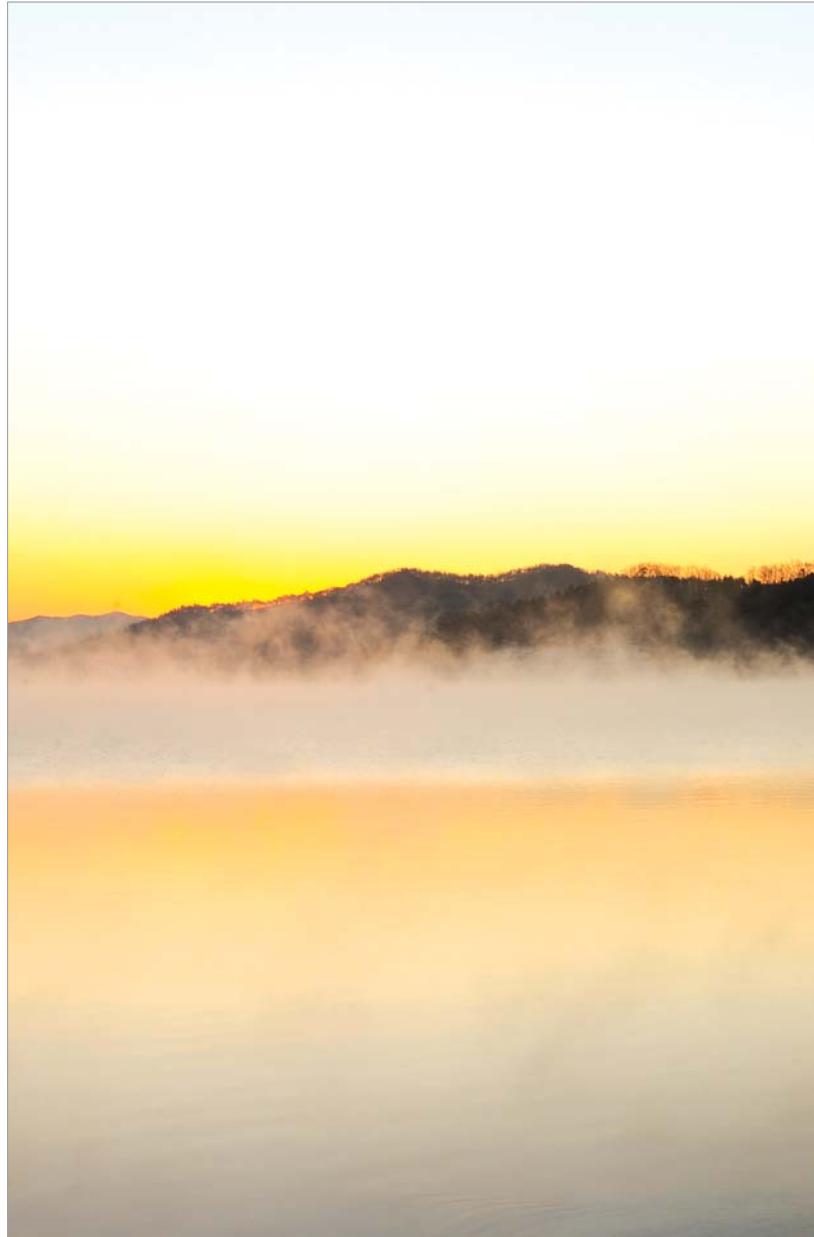
불로장생의 꿈은 명약이나 화타의 손에 달려있지는 않을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평소에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명약의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내 건강을 지켜줄 명약과 명약은 바로 내 몸과 내 마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매년 되풀이하는 다짐을 건강을 위한 신년맞이 덕담으로 되짚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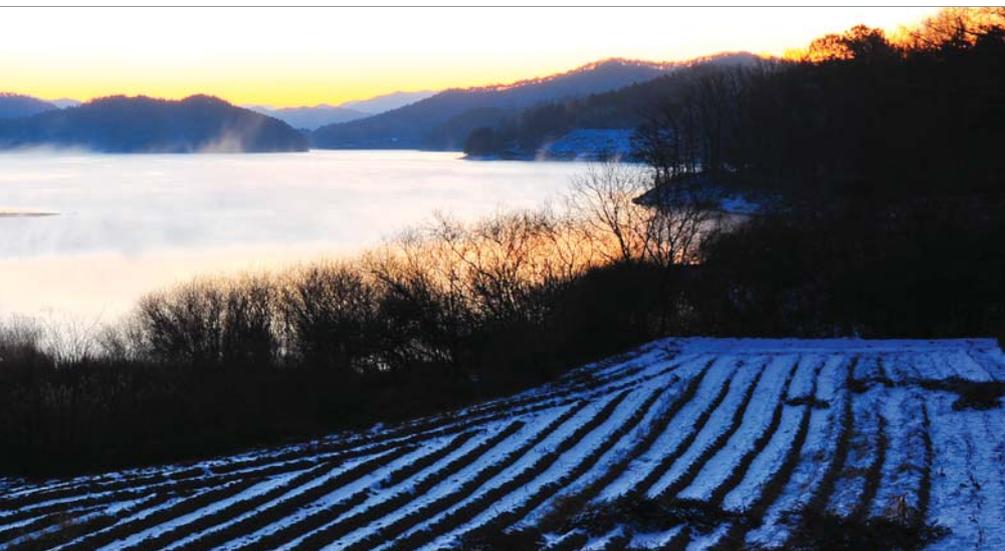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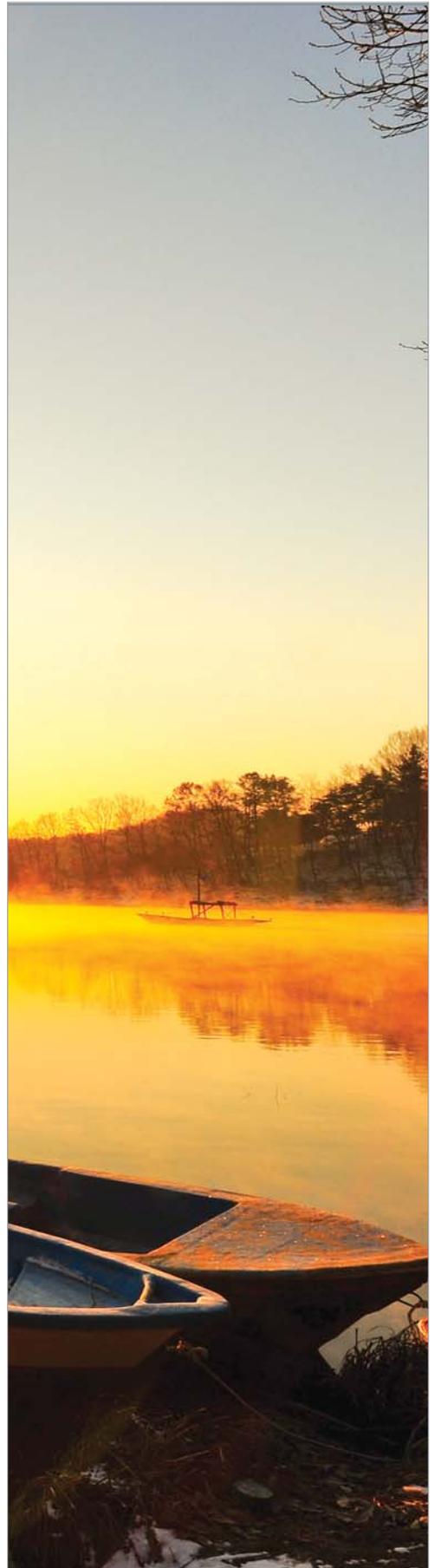
『2013 계사 새해에는, 부자 되겠다는 욕심, 크게 출세하겠다는 욕심, 천년만년 살겠다는 과욕을 버리게 하시고,

가까운 소중함보다 먼 귀함을 좇는 어리석음, 상식과 순리보다 기교와 허영을 바라는 마음, 책임보다는 권리에서 남보다 위에 서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재물은 곳간에 쌓지 말고 마음에 쌓게 하시고, 명예는 머리에 담지 말고 가슴에 담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보다 건전한 정신이 먼저 이게 하시고,

죽어서 돌아갈 곳 지구를 더럽히지 말게 하시고, 살다가 없어질 몸, 육체에 미련 갖게 하지 마시고, 더불어 살아갈 이웃에 좋은 사람 되게 하소서...』







백성의 살림을 살피는 임금님

정 경 일 _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기둥은 백성이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다스리는 사람의 첫번째이자 마지막 의무이다. 백성은 불행한데 임금만 즐겁다면 이는 옳바로 된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에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통치자는 백성들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는데 게을러서는 안 된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임금이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나타난다. 특히 그들이 민원을 들어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1468년(세조 14년) 1월 7일의 기록을 보면 은진현에 사는 마권기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군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를 풀어달라는 청을 임금이 허락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병조에서 충청도 은진현에 사는 정병(正兵) 마권기(馬權奇)의 일을 적어 아뢰기를, “마권기 등은 지난해 9월에 번상(番上)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금년 4월에 이르도록 부린다면 노고와 안일이 균일하지 못하니, 청컨대 놓아 돌려 보내어 휴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한 군대에 나갔다가 다쳐서 돌아 온 연산현 송규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고 위로하는 모습이 1467년(세조 13년) 7월 22일의 기록에 보인다.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보내기를, “충청도 연산현 사람 송규(宋珪)와 ... 경상도 진보현 사람

김경무(金景武) 등이 정벌(征伐)에 종군하였다가 함길도에서 화살을 맞았으나 살아 돌아왔으나, 각각 1년 동안 부역을 면제하고 아울러 술과 고기를 위로하라.” 하였다.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실의에 빠져 돌아온 백성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따듯이 감싸 안는 임금의 모습에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君師父一體)라고 하였던 옛 선비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논산 지역의 충신, 효자, 열녀에 대한 포상 기록과 함께, 1백세가 넘는 노인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은전을 베풀었던 기록도 보인다. 단종이 임금의 자리에 오른 해인 1452년 7월 14일의 기록에 보면 연산현에 사는 왕구우을개가 1백 1세이므로 수령에게 명하여 특별히 보살피도록 하고 있다.

충청도 연산현에 여자 왕구우을개(往仇汚乙介)가 있었는데, 나이가 1백 1세였으므로 소재관으로 하여금 항상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도록 하였다.

의학이 발달하고 환경과 여건이 당시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진 현재에도 100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귀하고 축복받는 일이다. 그러나 오래전 우리들의 평균수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어떤 자료에 보면 세종 임금 때의 평균수명이 채 40이 못 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오죽했으면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 해서 70살만 살아도 대단한 일이라 했겠는가? 그런데 지금부터 550년전인 조선 단종 임금 때에 100세를 넘어 사신 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분이 사셨던 곳이 연산현이었다니 이곳은 분명 축복받은 땅임에 틀림없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보살피는 이런 제도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지속되었다. 고종 때인 1902년의 7월 1일의 기록을 보면 은진군에 사는 김영철(金永喆)이라는 어른이 나이가 102세가 되자 임금은 이 분에게 특별히 종1품의 벼슬을 주어 그를 대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이 102세에 벼슬을 한들 그것이 무슨 실용적인 일이었겠는가? 우리는 임금의 마음에서 백성을 향한 따스함을 맞볼 뿐이다. 아니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는 공연히 감격하는 지도 모른다.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김호연재 생가

호연지기를 꿈꾼 여인, 김호연재!

정연봉 _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남천여지(男天女地)와 삼강오륜(三綱五倫), 삼종지도(三從之道)가 가족윤리의 기초였던 조선 중기에는 여성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간간히 남자 못지않은 지성과 논리로, 또 문재(文才)로 이름을 남긴 이들이 있었다.

김호연재(金浩然齋, 1681-1722)는 충남 홍성 갈산의 한적한 어촌 오두리에서 고성군수를 지낸 아버지 김성달과 어머니 이옥재 사이에서 5남4녀 중 여덟째로 태어났다. 김성달의 증조부는 병자호란 때에 순절한 김상용이며, 이옥재의 증조부는 문장 4대가로 이름났던 이정구이다. 이렇듯 높은 충절과 학문적 전통을 지닌 집안의 후예인 이들은, 벼슬살이 하는 남편이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시나 편지로 적어 보내고, 또 아내는 그에 화답하는 그런 금슬 좋은 부부였다고 한다. 한시집『안동세고』에는 호연재의 아버지 김성달의 작품 177수와 어머니 이옥재의 작품 71수가 실려 있는데, 이는 작품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한 시사에 기록될 만한 훌륭한 ‘부부(夫婦) 연시집(戀詩集)’이다. 두 사람은 ‘시 내기 바둑’을 두어 서로 별시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잡이배를 바라보며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다 한다.

이토록 다정다감한 부모 밑에서 문학 수업을 받으며 자란 호연재를 포함한 9남매는 뒤뜰에 심겨진 자형(紫荊, 밥풀떼기)나무를 매개로 시를 지어 화답하기도 하였다. 큰 오빠 김시택은 <絕句>에서, “뜰 가에 자형나무 처음 심을 때는(畔庭初栽紫荊枝) / 꽃과 더불어 형제들 즐기려던 것(弟兄湛樂與花期) / 사별하고 생이별하여 떨어져 있으니 너무 쓸쓸하구나(死別生離蕭索甚) / 봄바람에 꽃 피어도 슬픈 마음만 더해지네(春風花發使人悲)”라고 동기간의 그리움을 노래했고, 호연재는 <次紫荊詩韻>에서, “멀리서도 알겠어요, 북쪽 뜰의 밥풀떼기 나무(遙知庭北紫荊枝), / 해마다 피는 꽃은 기약이 있는 듯~(發年年似有期) / 사별하고 남은 삶, 나 또한 멀리 있어(死別餘生吾亦遠) / 봄바람에 머리 돌려도 슬픔이 절로 울어납니다(春風回首自生悲)”라 화답했다.

꽃다운 나이-19세에 호연재는 세교가 있는 회덕의 은진 송씨 가문으로 시집을 오게 된다. 한 살 아래인 남편 송요화(宋堯和, 1682-1764)에게 주역을 가르쳐준 김창흡은 호연재 부친 김성달과 8촌간이며 송시열의 문인이기도 했으니, 말하자면 당대 명문인 은진 송씨와 안동 김씨의 결합인 셈이다. 호방하고 법도를 생각하지 않는 편이었던 송요화는 과거운이 없어 여러 번 낙방하였고, 뒤늦게 호연재가 사망한 8년 후(남편 나이 49세)에야 처음으로 종8품 사산감역에 음직으로 임명되었다 한다. 문재가 남다른 호연재의 한시 작품 중에 남편과 주고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더라도 부부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경제 형편도 팍팍해서, 때론 “장이 떨어져 절박하니, 장 담가 먹게 콩 서너 말만 보내 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제친 현감이던 시아주버니 송요경에게 보내기도 했고, 친정 오빠에게 편지를 써서 쌀을 구하기도 했던 것을 그녀의 저작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물질적으로는 옹색하여 쌀이나 콩을 동기간에게 빌더라도, 그녀는 “가난은 선비의 떳떳한 도이다. 사람을 대할 때 덕이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지 의식(衣食)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自警篇』自守章).”라고 역설하며, 떳떳하고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 같다. 사대부가 여인으로서 드물게 그녀의 시속에는 담배 연기로 ‘시름 많은 창자(憂腸)’를 풀려 한시(南草)도 있고, 취하여 만사가 편안해짐을 읊은 시(醉作)도 있다. 한편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술 만드는 법과 음식 만드는 법을 정리한『酒食是儀』를 남기기도 했다.

당시 가족관계에 대해 호연재는『自警篇』에서 “남편 집안의 친척들은 이름은 ‘친(親)’이나 ‘정(情)’은 없고, ‘은혜’는 알지만 ‘의무(의리)’는 두터워 ‘붕우(朋友)의 도’와 비슷하다.”는 견해를 적고 있으며,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더라도 투기하지 말고, 참고, 인정하고, 화목할 것”을 강조하는 일반 규훈서(閨訓書)와는 달리, “남성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첩이란 가정의 근본을 크게 어지럽히고 심히 불행하게 하는 존재!(妾也者 大是亂家之本 誠爲不幸之甚...)이며, ‘적국(敵國) 이기 때문에 결단코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敵國者 決然不可相近者也)임.”라고 뚜렷한 주관을 펴고 있다. 참으로 호연재가 이상적이라 생각한 부부의 상은 “여자는 남편을 유순하고 지조 있게 섬기고, 남편은 행실을 닦고 덕을 숭상하는~” 모습이었으며, 서로 존중하고 노력하는 합리적인 부부상, 양성평등을 지향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사유가 논리적으로 펼쳐진 것이 바로 그의 『자경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끝으로 그녀의 시 <걸미삼산수(乞米三山守)>에서 그녀의 이름이 ‘호연재’인 유래를 확인해 보며, 이 땅의 많은 호연재의 후예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로 한다.

호연당 위의 호연한 기상!	浩然堂上浩然氣
구름도 물도 사립문도 호연함을 즐기네.	雲水柴門樂浩然
호연지기 비록 즐거우나 곡식에서 나오는 법	浩然雖樂生於穀
삼산 군수에게 쌀 빌리니 이 또한 호연한 일일세.	乞米三山亦浩然
	<걸미삼산수(乞米三山守)>



주제로 읽는 현대시산책 ⑱

천형의 시인 한하운

이재훈 _ 시인, <현대시> 부주간

천형(天刑)의 시인이라 일컫는 한하운 시인(韓何雲, 1919~1975). 한하운은 한센병(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아온 시인이다. 그의 시편 또한 한센병으로 인한 몸의 감각을 고통의 언어로 절절하게 표출하고 있다. “죄명은 문둥이……/이건 참 어처구니없는 죄이 올시다.”(『罰』)라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목소리는 많이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나가고 얼굴이 얇아 버리는 병을 천형으로 받아 살아가는 게 한센병 환자들이다. 이들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절망도, 한 올의 희망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 어떤 빛줄기도 보이지 않는 시공간 속에서도 한하운은 고통의 질병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 일을 해왔다. 또한 시인으로서 자신의 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한센병의 고통을 알리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한하운의 본명은 태영(泰永). 함경남도 함주 출생으로 1932년 함흥제일공립보통학교, 1937년 이리농림학교, 1939년 동경 세이케이고등학교(成蹊高等學校) 2년을 수료한 후,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1943년 북경대학 농학원을 졸업한 재원이다. 1944년 함남도 청 축산과에 근무하였으나 1945년 한센병의 악화로 관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고 월남하여 유랑생활을 잠시 하기도 하였다. 1950년부터는 성혜원(成溪園), 1952년 신명보육원(新明保育院)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1953년 대한한센연맹위원장으로 취임하여 나환자 구제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66년에는 한국사회복지협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무하문화사(無何文化社)라는 출판사도 경영했다. 한하운은 자신의 병에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여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온생을 바친 시인이다.

작품활동은 1949년 이병철(李秉哲)의 소개로 『신천지(新天地)』 4월호에 『전라도길』 외에 12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작하였다. 1949년 제1시집 『한하운 시초(詩抄)』를 간행하였고, 제2시집 『보리피리』, 1956년 『한하운 시전집』, 1958년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1960년 자작시 해설집 『황톳길』을 펴냈다. 아쉬운 것은 1960년대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찢끔거리며 /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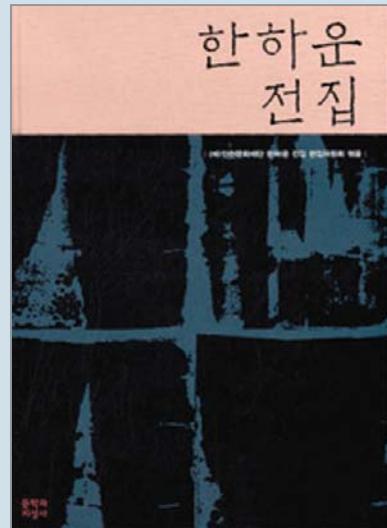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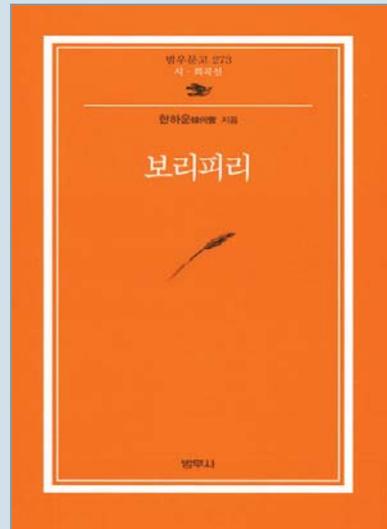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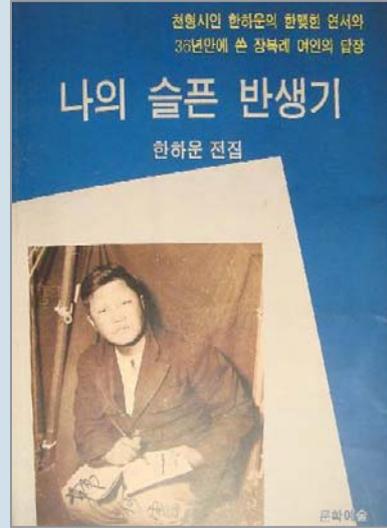
신을 벗으면 /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한 개었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 「全羅道길 ; 小鹿島 가는 길에」 전문

「전라도길」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한하운의 대표작 중의 한 편이다. 전남 고흥군의 섬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었다. 지금은 아름다운 경관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섬이 되었지만, 한센병하면 소록도가 생각날 만큼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섬이었다. 한하운의 시비도 이곳에 세워져 있다. 이곳을 찾아가는 길은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숨막히는 더위”으로 묘사되고 있다. ‘소록도 가는 길에’라는 부제가 붙은 것처럼 이 전라도길은 한센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공간으로 가는 길이다. 그 길로 가는 여정은 만만치가 않다. 그렇기에 외롭고 아픈 길이다. 이 길에서도 그리움은 있어 “문둥이끼리 반갑다”고 한다. 하지만 반가움은 잠시뿐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다. 한센병으로 인해 가는 길에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문드러져 없어져 있다. 지까다비란 버선의 일종으로 고무로 바닥의 창을 하고 질긴 천으로 만든 양말 같은 신발이다. 농부와 노동자들이 값싸게 신는 신발이다. 이런 험한 신발을 신고 살덩이가 떨어져나가는 고통을 감내하며 시인은 전라도까지 길고 긴 길을 걸었다. 그 길의 여정을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하다. 시인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다. “가도 가도 천리”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고 한다.

먼 전라도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시인의 의지는 삶에 대한 의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삶이 모두들 힘들다고 한다. 힘들어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한다. 정말 어려운 시대이다. 하지만 언제고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을까. 나보다, 당신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들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제 밖에서는 몸 누일 곳이 없는 추운 겨울이니 말이다.



온몸으로 근대의 벽을 허문 불꽃의 여류화가 - 나혜석

우 대 경 _ 논산문화 명예기자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까?

나혜석(1896~1948)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한국 최초 여류 서양화가, 여권운동의 선구자, 불운한 천재 여류화가, 부도덕한 여성, 진보적인 사회사상가, 페미니스트 모던 걸.....

사회적인 냉대와 편견, 그리고 개인적인 불행을 견뎌내며 고통받는 자아의 내면세계를 예술로 승화시킨 삶의 모습은 까미유 클로델이나 프라다 칼로와 닮아있다.

불운하게 살다 간 예술가들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한 편의 비극과 같은 느낌과 함께 신화로도 받아들여지는 좋은 '소재'이자 한 편의 소설과도 같다.

이들은 자신이 남긴 작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다간 인생까지도 함께 두고두고 이야기 거리가 된다. 그녀가 살다 간 인생은 그녀가 남긴 작품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 있을까?



나혜석과 남편 김우영

나혜석의 삶, 그녀의 인생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이며 여권운동의 선구자인 나혜석은 경기도 수원 의 개화된 가정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호는 정월(晶月)이며, 1913년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유화를 전공했다.

1918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함흥 영생중학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지내다가 3·1운동에 참가 후 체포되어 수개월간 투옥되기도 했다.

1921년 서울 경성일보사 내청각(來靑閣)에서 첫 전람회를 열었는데, 서울 최초의 서양화 전시회로(매일신보)의 기사에는 "낙역부절하여 인산인해(絡繹不絕 人山人海)였다고 한다.

사람들에게 유화를 알리고 보급하는데 힘쓰며, 「이른 아침(早朝)」과 같은 목판화로 민중의 삶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불란서 마을풍경 유채 30×45.5cm 개인소장

1923년 일본 외무성 관리가 된 남편을 따라 만주에 거주했으며, 1927년 모스크바를 거쳐 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을 여행하면서 미술관과 박물관을 견학하고 파리에서는 아수파 계열의 그림을 그렸다.

제1~11회까지 조선미술전람회에 9번 출품하면서 발표된 작품으로는 〈가을의 정원〉, 〈낭랑묘 娘娘廟〉, 〈천후궁 天後宮〉 등이 있다. 유럽 여행중 사귀 친린과의 만남이 문제가 되어 귀국한 뒤인 1931년 이혼했다. 그 뒤 사회의 인습적인 도덕관에 저항하는 〈우애결혼, 실험결혼〉·〈이혼고백서〉 등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글을 발표했으나 사회의 냉대로 점점 소외되었다. 1935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수덕사·해인사 등을 전전하며 유랑생활에 들어가 정확한 행적을 알 수 없다. 1948년 서울 자혜병원에서 행려병자로 쓸쓸한 인생을 마감한다.



자화상

나혜석의 회화는 시기별로 화풍이 다르게 나타난다. 동경유학 이후부터 세계일주 이전까지의 작품(1918-1926)은 일본에서 습득한 아카데미즘과 인상파가 절충된 화풍을 보인다. 세계일주 및 유럽체류시기 작품(1927-1929)경향은 인상파 화풍위에 야수와 화풍과 입체파 화풍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귀국이후의 작품(1930-1935)은 인상파 화풍의 작품과 파리시절의 스케치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 그리고 기법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등 다양한 경향이 보인다. 대표작으로는 <자화상>, <스페인의 풍경>, <파리풍경>등이 있다.

1933년에는 미술연구소인 '여자미술학사'를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했으며, 1년 뒤 『삼천리』에 「이혼고백서」를 발표하면서 여성에 대한 억압철폐, 여성의 자유실현 등 기존의 인습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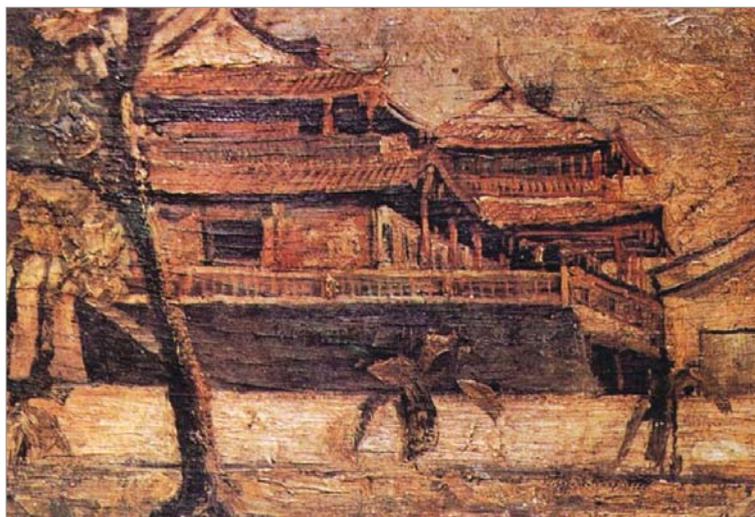
현모양처가 여성의 모범상으로 정해진 시대에 자기의 예술을 추구하다가 이혼을 당하고 빈몸으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 관습에 도전한 나혜석에 대한 조선사회의 반응은 차가웠고, 사회의 냉대속에서 경제적 궁핍과 쓸쓸한 생활을 하면서 나혜석의 심신은 서서히 병들어 갔다. 화재로 그림을 태워 먹고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된 충격으로 신경쇠약과 반신불수의 몸이 된 나혜석은 절집들을 떠돌아 다녔고, 해방 후에는 서울의 한 양로원에 맡겨졌으나 어느 날 양로원을 나선 뒤 종적이 묘연해졌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서울의 시립 자혜병원 무연고자 병동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의 무덤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

나혜석은 여자도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온몸으로 살아간 화가이며 민족주의자이고 여성해방론자였다. 자신이 내딛는 한 걸음의 진보가 조선 여성의 진보가 될 것이라는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여성에게도 인간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관념의 억압성을 해체하는 글들을 써서 사회의 비난을 자초하면서도 시대를 앞서 살아갔던 그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여성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다.

나혜석의 고향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가 만들어졌다. 시대를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 시대와 불화한 여성 나혜석의 삶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

당당한 인간으로서, 구습에 항거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류화가로서 그녀 나혜석을 기억한다.



만주봉천풍경 유채 23.5×32.5cm 개인소장

인형의 가(歌)

나혜석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을 되도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
의무같이 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의 길로 밟아서
사람이 되고저
나는 안다
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온통을 다 털어 맛보이는
진정 사람을 제하고는
내 몸이 값없는 것을
나 이제 깨도다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비쳐다오.
많은 암흑 횡행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수하게
엄밀히 막아논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남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여성영웅 이야기

김정녀 _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수

고전문학에서 ‘영웅 이야기’는 남성의 전유물인 듯 보이지만, 여성영웅을 주인공으로 다룬 소설들이 있어 조선시대 독자들의 열렬한 애호를 받기도 했다. <이형경전>, <홍계월전>, <정수정전> 등이 대표적 여성영웅 소설들인데,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은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등 남성영웅과 다름없는 활약을 펼친다. 그런데 여성이 아무리 남성 못지않은 지략이 있고 국가를 위협에서 건져낼 만한 재주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소설 속 여주인공들은 모두 남복(男服)을 입은 남장(男裝)한 여성의 모습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운다. 하지만 국가가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정체가 드러나, 결국에는 여성 본래의 자리인 규방(閨房)으로 돌아가 남성영웅을 보필하는 위치로 물러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러한 일군의 여성영웅소설은 통속적이긴 하지만, 분명 조선후기 여성독자층의 욕망과 자아실현의 꿈을 대리 충족시켜 준 시대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적진을 향해 돌진하며 용력을 뽐내던 여성영웅이 돌연 규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여생을 마치는 결말 구조에서 여성의식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선후기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를 그 원인으로 돌릴 수도 있겠으나, <방한림전>에 그려진 여성영웅의 삶과 대비하여 보면 일군이 여성영웅소설 작가들의 진지한 고민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방한림전〉은 영웅성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여성의 몸으로 남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일군의 여성영웅소설과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여성영웅이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구현한 뒤 남성영웅을 만나고, 곧이어 여성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홍계월전〉 등 여성영웅소설의 패턴이라면, 〈방한림전〉의 여성영웅 방관주는 자신의 욕망을 더 크게 펼쳐 보이기 위해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입양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등, 남성적 삶을 지속해 나간다는 점에서 여타 여성영웅과는 다르다. 작가는 〈방한림전〉에 등장하는 두 여성을 통해 이제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여성영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방관주는 어려서부터 여복(女服) 대신 남복(男服)을 입고, 여공(女工)을 쌓는 대신 과거(科擧) 공부를 한다. 부모 역시 그런 방관주의 행동을 일부러 저지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부모 모두 병으로 세상을 뜨자, 유모는 방관주에게 이제 남자로 처신하는 거조를 그만두고 군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나 방관주는 남자로 자랐으며, 출장입상(出將入相)을 바라며 독서에 정진한 그 세월을 포기할 수 없기에,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남성이 되어’ 살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과장(科場)에 나아가 당당히 장원급제하고, 영혜빙과 결혼하여 지기(知己)로 지내면서 못 사람들의 의혹을 물리치고, 결혼 후에는 낙성을 입양하여 후사를 잇는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삶을 살아간다.

영혜빙은 평소 ‘여성의 삶’에 대해 “매사를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삶”이요, “사람[남자]의 절제를 받는 삶”은 “죄인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 건줄(巾櫛)을 받들지언정 차라리 인륜을 그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집을 방문한 방관주를 보고는 한눈에 여장부임을 알아본다. 세상 부부의 삶을 혐오하던 그녀지만 건줄을 받들 대상이 자신을 알아주는 여성이라면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인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일지라도 남자의 절제를 받는 ‘여성의 삶’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부모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결혼을 감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의 흥금을 털어놓고知己이자夫婦로서의 인연을 맺는다.

결혼 후 방관주는 신분 노출에 대한 염려 없이 자신의 사회적 삶을 이어나가고, 영혜빙은 자신을 억압하는 남편과의 불화나 다른 가족(시아머니, 첩)과의 갈등 없이 화평한 삶을 이어나간다. 방관주는 잠시 간신의 모함으로 형주 안찰사로 체직되지만, 민심을 잘 다스려 임금의 신임을 더 크게 얻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후사를 의탁할 아들 낙성을 얻어 온전한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그 후 전장에 나아가 혁혁한 공을 세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낙성을 키워 자부(子婦)를 얻고, 그 자부가 자손을 낳을 때까지 방관주는 평생을 남성의 삶을 산다. 임종 시 임금에게 그 정체를 털어놓지만 임금마저도 그의 삶을 인정하고 방관주의 장례를 남장(男葬)으로 치르도록 허락한다.

〈방한림전〉은 여성적 삶이 지닌 제약성을 자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소망한 방관주와 그러한 방관주의 삶을 지지하는 영혜빙이란 여성 인물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성이기 이전에 자유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여성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두 여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대 사회구조가 지닌 모순, 즉 다양한 성적 장치를 통해 여성의 삶을 억압했던 불합리한 현실을 읽어낼 수 있다. 물론 두 여성이 선택한 삶이 모순된 사회를 변혁할 이상적이고도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작가가 보여주려 한 변혁의 가능성만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통속적 여성영웅소설과 다른 〈방한림전〉이 지닌 의의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다.







까꾸페 바실리카성당

열정과 긍정의 나라 파라과이

박 상 구 _ 논산문화원 회원

우리나라에서 지구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 파라과이에 도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미국의 LA를 경유해서 브라질 상파울로 그리고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까지 비행기를 3번 갈아타며 비행시간만 장장 26시간이 걸리는 힘든 여정이었다. 7월의 하순 우리나라는 한참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었지만 파라과이는 겨울이었다. 섭씨15도 내외의 선선한 날씨가 나를 반긴다.

떠난다는 것은 늘 묘한 흥분과 함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든다. 농촌진흥청의 KOPIA(해외농업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저개발국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한 달간의 일정을 계획하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자꾸만 온난화로 인하여 더워지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생각하며 아열대성의 기온을 갖고 있는 파라과이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정책을 구상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남미의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보다 국토면적이 4배나 크지만 불모지가 많고 남미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바다를 볼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하다.

200년전에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였으나 아직도 언어, 문화, 혈통, 종교까지도 그 그늘에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간히 외신을 통하여 축구를 열광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나라 정도만 알려져 있는 나라다.

토요일 새벽 0시10분 아순시온의 상공에서 바라 본 야경은 아담하고 소박해 보였다. 도시의 불빛은 무계획적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시시해 보였다. 수도 아순시온에서 30Km정도 떨어진 까꾸페 마을의 숙소로 도착한 직후 바로 뚫아 떨어져 버렸으나 현지에도 도착한 날부터 꼬박 하룻동안 몸살을 앓아야 했다. 거의 이틀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편한 여정가운데 강행군을 하였기에,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나에게도 무리였음을 알게 해 주었다.

일요일 새벽 숙소 바로 옆의 까꾸페 바실리카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지 오르간소리와 찬송소리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소리가 계속 반복되었다. 간간히 익숙한 찬송곡도 들려와 반갑기도 하였다. 밖에 나와 보니 성당뿐만 아니라 성당옆의 공원에도



까꾸페 바실리카성당 내부



성당에서 손바닥을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가득 나와 마치 축제를 하듯이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고단하며 궁색해 보였다. 남루한 옷차림과 지친 표정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당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당벽에 새겨진 손바닥 문양에 손을 대고 각자의 소원을 기도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성당은 파라과이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성당이라고 한다.

차로 3시간을 달려 힘들게 접근한 오지에 살고 있는 농가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들과 엄마는 맨발로 다니고 어린 아이들이 개나 돼지와 오리와 함께 마당을 텅굴고 있었다.

오직 아버지만 신발을 신고 다니고 불모지와 다를 바 없는 농지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차라리 도시에 나가서 아이들 교육 시키고 일자리도 얻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그 아버지의 대답은 여기가 좋다고 하였다. 13명의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좋고 3명의 아들들은 인근 아르헨티나에 일하러 가서 수입이 있고 마당의 나무는 뜨거울 때, 좋은 그늘을 만들어 주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좋다고 하며 크게 아쉬울 것이 없고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많은 물질적인 혜택과 편리한 과학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행복지수가 낮는데 이 나라는 반대인 것 같다. 그제서야 나는 저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고 더 깊이 그들을 이해 할 수가 있었다.



순진무구한 파라과이 어린이들



아레구아 딸기마을



축구와 풋살을 좋아하는 파라과이 청소년들



파라과이 식당

아레구아 딸기마을에 방문하여 보니 다음주에 딸기축제를 연다고 하여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을옆의 도로변에는 딸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20여곳 성업중이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노지재배방식으로 딸기를 재배하는데 맛이 시고 더 이상 손이 가질 않는다. 그래도 딸기를 손질하여 가공용으로 납품하는데 잼과 각종 향료, 딸기차 등을 만든다고 한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하여 500km정도 떨어진 컨셉시온이란 도시로 이동하는 도중에 산 페드로병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병원의 벽에는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각인되었는 것이 보였다. 알아보니 이곳은 파라과이 전대통령인 루고대통령의 고향인데 대한민국 코이카에서 지원하여 종합병원을 세워준 것이라 하였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도 이곳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전까지는 이곳이 수도인 아순시온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대처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다며 고마워 하였다. 우리나라가 지구반대편에 위치한 어려운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이 밀려 온다.



겨울을 이겨내는 자연의 힘 - 겨우살이

이 명 식 _ 논산문화원 회원

겨울철에는 주로 꽃이 없으니 봄부터 꽃을 피워 가을부터 농익은 열매 위주로 촬영에 나섭니다. 그 중 인기가 있는 열매 중의 하나는 겨우살이입니다.

겨우살이는 보통 해발 700m 이상의 고지에서 성장하며 참나무 등의 다른 나무에 착생한 후 착생한 나무의 수액을 빨아 먹고 사는 기생 식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계룡산이나 대둔산의 정상 부근에 가면 찾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속세에 더럽혀지지 않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말이 행복 안전 희망으로 겨우살이의 열매는 붉은색이나 노랑색의 젤리에 폭 싸여 있으면서 주로 조류의 눈을 현혹시키고 각종 새들이 겨우살이의 열매를 따 먹으면 껍질만 녹은 채 씨앗은 점성이 아주 좋은 젤리에 쌓여 배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배설된 씨앗은 다른 나뭇가지에 옮겨질 때 배변이 낙하 속도에 따라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 젖다가 점점 다시 올라 붙으면서 그곳에 다시 기생하게 되는 겨우살이의 종족 번식 방법을 들여다 보면 정말 경이로운 모습에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겨우살이의 종류도 겨우살이 붉은겨우살이, 꼬리겨우살이, 동백겨우살이 등 기생하는 나무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며 주로 항암작용이 강하고 고혈압신경통, 관절염등에 효과가 좋다하며 약초꾼들의 표적이 되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식물입니다. 아마 추운 겨울 눈바람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겨우살이의 강한 생명력이 인간의 병을 고치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속대제전 참가(10월 4일)

제22회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 공주 금강둔치에서 개최되어 씨름, 줄넘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널뛰기, 힘자랑에 30여명의 논산시 선수가 참가하여 종합 4위를 차지하였다.



청춘남녀 문화탐방(10월 27일)

청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논산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재미있는 커플 이벤트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찾아주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여 5쌍이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10월 31일)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라는 주제로 시낭송과 전통무용 등이 협연하는 등 조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논산기행(11월 13일)

가족 단위로 참가하여 노성산을 등산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인근 유적지를 답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문화재도 알게 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금년 1월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하여 다른 코스의 산과 들을 걸을 예정이다.



황산벌전투재현(10월 6일)

논산시와 (재)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계백장군유적지 잔디광장에서 많은 관광객이 움집한 가운데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가 펼쳐졌다.



수험생과 시민을 위한 음악회(11월 9일)

논산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가수 김건모, 백지영, 특식, 에이핑크가 출연하여 수능을 마친 수험생은 물론 논산 시민 5,000여명이 관람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로연(11월 20일)

논산시유림협의회(회장 이기채)는 놀미금고 4층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유림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유림 공로패와 효행자 포양문이 수여되었다. 기로연은 조선 태종때 70세이상 문신을 치하 위로하는 주연을 베풀던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금난새 음악회(11월 23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를 초청, 건강문화콘서트홀에서 1,080석을 가득메운 채 금난새 지휘자의 곡에 대한 해설과 함께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큰 감동을 선사하였다.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는 음악회

박정임 _ 논산문화 명예기자

늦가을, 아름다운 국화향기 무르익고 하늘 고운 그 날,
낙엽 태우는 냄새와 연기가 소복이 깔려 물씬 가을에 젖은 날,
지난해 11월 12일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들의 가슴 설레는 음악 향연인 제11회 청소년 음악회가 열렸다.
며칠 전부터 아이들의 술렁임에 마음이 끌리던 차라 그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 그들의 발길을 따라 논산문화예술회관에 찾아 갔다.

이 음악회는 논산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여러 장르의 연주활동이 펼쳐졌다. 화려한 성인 음악가들의 활동에 비하면 아직은 경험도 적고 실력도 미흡하지만 이 작은 음악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주에 임하는 자세만은 큰 감동을 주었다.

역시 음악회의 백미인 독창에서의 가곡이 주는 감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김동환 선생의 '그리움'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에 파고드는 깊은 그리움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효과를 만들어 주었다. 성악가가 꿈인 노래를 부르는 학생의 표정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내가 아는 학생이어서 평상시 들을 때에 풍부한 성량에 내가 좋아하는 테너의 매력적인 음성을 기대했는데 소리가 입안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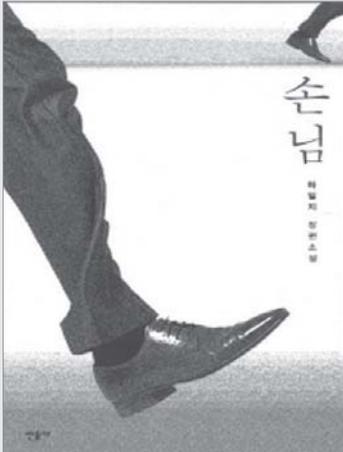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그 학생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 "예, 많이 떨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많은 친구들이 알아주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

역시 무대란 많은 사람들을 떨리게 하기도 하고 황홀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곳이 맞는 것 같았다. '얼마나 떨렸을까' 모든 발표하는 학생들 표정이 얼어붙어 있어서 아쉬웠지만 이제 시작하는 그들이 좋은 수업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지도교사의 노고와 음악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무척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평소에도 특별한 제자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존경하는 분이시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조금은 미숙한 부분도 보였지만 숙달된 기능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뽐내내는 악기의 연주마다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다. 아쉬웠던 점은 객석을 채우지 못한 관람의 호응도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잠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훌륭한 음악가를 위한 이제 시작의 무대가 열리어 오늘 이 음악회가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내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어 참 기뻐다.

문화인에게 권하는



손님

· 지은이 : 하일지 · 출판사 : 민음사

하일지는 90년대 <경마장 가는 길>로 한국 문단에 사건을 일으키며 나타난 작가입니다. 그 책은 보지 못했지만 이름은 익히 알고 있던터라 우연히 마주한 <손님>을 읽는데도 거부감이 없었지요.

<손님>을 읽고 나서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그리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 찡해지는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외국인 손님인 하원이라는 마을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무용선생과 그의 가족, 무용을 배우는 여학생들을 찾아온 이 손님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단 하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외국인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선생인 허순은 개고기를 양고기라 속이고 식사값을 손님에게 떠넘기고도 당연합니다. 등장인물 모두가 말을 해도 그는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책의 마지막 즈음, 손님을 좋아하던 여학생 유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저씨가 한국말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콩닥거렸던 가슴이 슈 아저씨가 한국말을 하자 왜 갑자기 잠잠하게 가라앉았나 하는 거야.” -p. 226

왜 그녀는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손님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솔직합니다. 어차피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욕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고,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걸러서 번역될 것이라 생각하죠. 손님은 걸보기에 어떤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조롱거리가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손님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지요.

그러나 손님이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모두 다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을 독자가 알게 되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전복되고 맙니다. 그동안 보였던 속물적이고 비겁한 모습들이 마치 내가 아는 사람인양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책의 묘미는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외국인에 한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내 안에 숨어있던 악마가 불쑥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본성이나 본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참 어두울테니까요. 다만, 작가가 한 발짝 비껴 서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속물적인 모습들이 불편한 진실처럼 다가온다면 자신의 내면을 한 번 더 바라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실패의 향연

· 지은이 : 크리스티아네 취른트 · 출판사 : 들녘

이 책의 부제는 '최후의 금기어를 논하다'입니다. 제목보다 부제가 더 호기심을 부르지요. 절망도 죽음도 아닌 실패라니요. 어쩌면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가 '실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실패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청춘을 다독이는 책으로 그야말로 위로를 전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두려운 청춘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 없이 그저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가 낳은 수많은 문제들을 어찌 한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고 토닥이는 것이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전부겠지요.

이 책의 작가가 다루는 실패의 이야기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잔혹사입니다. 실패의 경험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의 실패, 실패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꺼내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냉정하고 비정하게 실패를 논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도 받고 싶어하지 않는 위로이며, 열려라 참깨가 아닌 진흙탕길이고 세 일날 잘 건진 물건이 아니라 빛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중략) 실패 속에 숨겨진 기회는 결점이 있는 기회다.' (p. 44)

작가는 실패에 대한 많은 예를 들어가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건너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실패자, 신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부터 돈키호테, 루소, 아문센 등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쯤 되면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말해도 모자랄 시간에 다양한 실패의 사례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 자신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기 때문이지요. 사소하게는 결혼에 대한 걱정부터 직장에 걱정, 친구관계까지 크고 작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려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에 크든 작든 실패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면 실패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겪고 이겨냈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냉정하고 잔혹한 작가의 말도 어쩌면 실패를 '잘' 겪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약속하는 사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회, 마음먹으면 변화할 수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이야기하지 누구도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패를 알고, 실패를 겪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실패가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는 용기가 먼저일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웬띠둥 _ 베트남, 논산YWCA회원



저는 베트남 북쪽 하노이에서 시집온 웬띠둥, 한국이름은 김은혜 입니다. 친척언니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볼수록 성격이 좋고 잘 생겨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서울서 시작한 신혼은 달콤하였으나 남편의 잦은 직장 이동으로 지금은 논산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 성중, 저...남편이 곁에 없는 생활이 처음에는 허전하고 두려워 많이 울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답답함... 한국에 시집 온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제 남편은 주로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는 어쩌다 한번씩 들어옵니다. 강원도에서 펜션 일을 할 때에는 한 달에 한번, 다른 지방에서 일하고 부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왔기에 더 보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종시에서 건설업체 배관 일을 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항상 두근두근 거리는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친정어머니 같이 딸처럼 대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살게 되어 한국풍습, 음식, 한국어 등 매일 매일 배우게 되어 좋았고 손자 성중이도 잘 돌봐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남편의 빈자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들은 다문화 여성들이 마음 놓고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YWCA 보육실에서 아기를 돌보는 보육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통 이용이 힘들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찾아가는 보육교실 보조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도 예쁘고 일도 재미있고 보람 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건양대학교 이주민사회통합 연구소에 한국어 5단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중에도 하루 중 제일 여유로운 시간은 저녁에 어머니와 연속극 보고 아들 성중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 때입니다. 이때는 가족이라는 것이 절망 사랑스럽고 내게 힘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라는 것은 남편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되어서 집에 오는 남편은 기다린 저는 별로 안 쳐다보고 아이하고 시간 보내고 어머니와 시간 보내고...좀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에 남편이 아이에게 보낸 문자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중아, 매일 아빠 못보고 자게 해서 미안하고 놀아주지 못해 많이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는 늘 성중이만 생각한단다. 사랑한다 성중아! 쪽 쪽 쪽. 내 보물 성중이가 있어 아빠는 늘 힘이 난단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할머니,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우리아들 사랑해”

문자를 보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고 우리아이와 가족을 사랑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 나쁘거나 좋거나 전 후회하지 않아요. 행복한 미래가 있으니깐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문단

운문

인연으로 피는 꽃 / 헤림 오승순

산문

금난새와 함께 한 행복한 가을 저녁 / 이정미

백제무장 달솔 계백의 성은 계백인가? / 이찬우

인연으로 피는 꽃

헤림 오승순 _ 논산중앙초등학교 교사, 시인

인생길은 곱디고운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꽃향기 동행 길 사랑입니다

춘하추동 하루한낮 그침 없이
함께 가는 빛 고운 순례의 여정입니다

아름다운 여정 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정다운 빛을 엮어갑니다

많고 많은 인연 중에 마음 한 자리를
가득 담은 인연은 향기로운 인연입니다

바라보는 눈길이 희망의 빛이 되고
모퉁이 길목의 기다림이 감사의 샘물입니다

진실담은 격려의 말이 희망의 나래를 주고
오늘 존재함을 감사하여 두 손 모아집니다

고해의 삶 엮으며 휘청거릴 때
조용히 다가와 버팀목으로 함께 가는 사랑입니다

초록 잎 움트는 봄날에는 희망을 얻고
푸르른 녹음의 날에는 그들을 만납니다

은행잎 곱게 물든 가을날에는 동행의 기쁨을 안고
백설 휘날리는 겨울날에는 하얀 사랑을 바라봅니다

사시사철 곱게 물든 정다움을 입고
사랑 빛 마음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영겁을 다해 지지 않는 그리움의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연연히 피어납니다.

금난새와 함께 한 행복한 가을 저녁

이 정 미 _ 논산문화원 회원

낙엽이 진 자리에 바람만이 와서 놀다가는 저녁, 주머니 양쪽에 아이들 손을 잡고 건양대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은 캄캄한데 콘서트 홀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주홍색 빛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조수미, 신영옥씨와 함께 노래를 위해 연주하시던 오케스트라 단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노래가 아닌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만 듣는다고 생각하니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시험을 본다 해도 클래식만 들으면 좋고, 아이를 갖고는 아이의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길래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며 낮잠을 자던 때가 떠올라 싱긋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TV속에서 보던 아저씨인 금난새씨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상상을 했었는지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돈키호테라고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누가 제목을 ‘금난새와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라고 지었는지 연주를 감상하면서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졸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유있는 미소를 띠며 설명하실 땐 자상하고 키 작은 옆집 아저씨 모습이였다가 지휘를 하실 땐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모든 음이 지휘봉 끝에서 흘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들으면서 넓은 초원에서 마리아와 아이들이 부르던 모습을, 마리아를 걱정하며 부르던 수녀님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을 들을 땐 금난새씨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진짜로 월세를 못내서 쫓아올라온 주인들의 노크소리로 들렸습니다. 정말 “빠바바밤” 그 작은 마디가 이야기로 들려서 아이들과 많이 웃었습니다. 비제의 음악을 들을 땐 고교생나이에 만들어서 그런지 감성이 풍부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할머니께서 낙엽이 구르는 모습만 봐도 웃을 나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보에 소리가 슬프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환상 등이 떠올랐습니다. 바이올린이 혼자 연주할 땐 툭툭 튀는 여자 같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들으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머릿속은 몇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아 시원했습니다. 이번 연주를 듣고 클래식은 무조건 외우고 지루하다는 생각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또한 아이들과 음악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음악회였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를 보면서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백제무장 달솔 계백의 성은 계백인가?



이 찬 우 _ 시민, 계백사업소 근무

충청남도 논산시 수락산 아래 5천 결사대의 선봉에 선 용장이자 맹장 계백의 무덤이 있다. 사직을 위해 죽음을 맹세한 명장 계백은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5만 대군과 싸워 네 번 이겼으나 중과부적으로 수락산 기슭에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그의 시신은 백제 유민들에 의해 이곳 수락산에 은밀히 매장되었다고 전해진다. 우리시에서는 이곳 수락산 계백장군묘 일대를 성



역화 하여 계백을 기리지만 정작 우리는 계백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백제와 관련된 역사는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존재가 이름을 뜻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으로 이름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이름이 없는 한 누구도 그 사람을 기억하거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계백은 백제의 제2품 관등인 달솔에 올랐다. 그의 신분에 대한 정보는 이것이 전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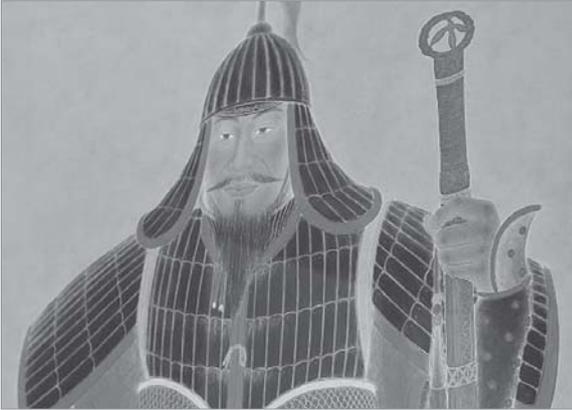
계백의 이름이 백인가 아님 계백인가. 고대 국가에서는 성씨가 통치의 수단일 뿐 아니라 행정관리 체계로도 활용되기도 했기에, 성씨는 집단적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이자 역할이었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부터 성씨를 사용하다. 근초고왕은 여구, 진지왕은 여영, 무령왕은 여룡, 성왕은 여명등 중국역사서에 기록이 남아있고 무왕때 이르러 부여씨로 기록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때 한자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한것은 백제의 근초고왕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백제 근초고왕시대 왕족의 성씨 외에 보이는 성씨로는 사,연,협,해,진,국,목,국 등의 8족과 왕,장,사,마,고,개,흑,치 등의 성씨가 기록으로 나오나 계백 성씨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계백 성씨가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근원을 여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29년 중국의 하남성 낙양에서 발견된 흑치씨의 유래가 담긴 【흑치상지 묘지명】을 통해서 일정 부분 추론할 수 있다. 흑치상지 묘비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흑치씨의 유래였다. 흑치상지의 묘지명에서 그 가문은 대대로 달솔을 역임하였다. 기술한 부분은 흑치상지 집안이 백제 관등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한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계백의 가문 역시 달솔을 역임할 수 있는 명망 있는 가문일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이 장군, 박 장군, 보통 성씨 다음에 직함을 넣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계백 장군, 흑치 장군 이라 그 당시에 불려 졌을 것, 그러면 계백은 이름이 아닌 성일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필자의 추측일 뿐이다.

당시 고대국가에서 성씨는 왕족이나 귀족층에서조차 사는 지역이나 씨족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성씨를 쓰는 인구는 많지 않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백제의 왕족들도 성씨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했다 백제가 무너지고 200년도 안 돼서 백제의 성씨는 신라나 고려의 인물들 사이에서 전혀 보여 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백제의 성씨를 쓰던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당시 중국의 노예로 끌려 갔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성씨를 개명했거나 버렸거나 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당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 백제의 대표 성씨는 한반도에 찾아보기



어렵고 중국에 난씨, 사씨, 진씨 등이 백제가 멸망한 후 중국에 동화된 사실을 암시한다

백제의 역사는 희미한 안개에 싸여 있고 아직도 옛 백제 영역이었던 땅 속에 묻혀있다. 패망한 나라라는 사실이 백제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만큼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다.

백제의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에 대부분 등장하는데 이런 기록들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기록을 증명 할 만 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는 기록만으로 또는 유적이나 유물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두가지가 상호 보완적이고 합해져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인간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아직까지 계백장군에 대한 유적은 논산 수락리 무덤이 전부 인 듯 보인다. 장군에 대한 기록도 유적도 유물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장군의 성씨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처음 시작이 잘못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곳 논산 수락리 계백장군유적지내 장군의 묘 묘비명에 정확한 이름부터 찾아가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생각 할 수도, 존재 할 수도 없다.





청소년 마당

제27회 논산시 효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

운문

초등부 장원 - 아버지의 사랑 / 이경원

중·고등부 장원 - 아버지 / 김미나

산문

초등부 장원 - 할머니하고 나하고 / 서민주

중·고등부 장원 - 할머니의 기쁨 / 박혜령



아버지의 사랑

이 경 원 _ 논산중앙초등학교 6학년

띠띠띠띠 띠리링 드르르릉
한 손에 피자 들고 함박웃음 지으시고
구린 발 냄새 풍기며
들어오시는 우리 아버지

“우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그래 많이 먹고 썩썩 커라.”

내 얼굴 쓰다듬어 주시고
자리에 누우시는 우리 아버지

땀 하물처럼 벗겨져 나뒹구는
땀에 취한 양말 한 켤레
아버지에게 구수한
사랑의 향기를 배웁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저 멀리서 들려오는
꽁꽁 앓는 신음소리
아버지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어느새 내 두 눈은 붉게 물들고
내 여린 두 손은
디딤이 방망이가 되어
“토닥 토닥 툭툭툭”
아버지의 효자 손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노래가 됩니다.





할머니하고 나하고

서민 주_ 논산중앙초등학교 5학년

"왕할머니아~ 민주왔어요!"

"어이구 우리 강아지 그러... 그러..오늘은 어떤 놀이냐..?"

"헤헤. 요번에 읽어드릴 책은요... 바로 <똥떡>이라는 책이에요!"

"똥? 똥 떡?"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왕할머니께서는 연신 무릎을 치시며 "그러, 그러. 맞다 맞아~"를 연발하셨다. 즐거워 하시며 싱글벙글 웃으시는 왕할머니를 볼 때마다 덩달아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내가 왕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됐다. 혼자서 텅글거리며 책을 읽는데 문득 보니 왕할머니께서 내게 바짝 다가와 앉아 계셨다. 그리고는 "재밌자.. 뭐라고 쓰였누..." 하시며 굉장히 궁금해 하셨다. 나는 큰소리로 읽어드렸는데 어찌나 좋아하셨던지..... 그 후부터 주말이면 왕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다. 왕할머니께서는 글을 잘 모르신다. 아니 배운적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글을 모르신다는 왕할머니께 글자를 가르쳐 드렸다. 사실 꽤 어려웠지만 그래도 왕할머니 성함은 쓰실 수 있게 해드렸다.

연세가 아흔이 넘으신 왕할머니는 내게 증조할머니가 되신다.

증조할머니라는 발음이 어려워 어렸을 적부터 왕할머니라고 불러서 나는 지금도 왕할머니라고 기억한다.

왕할머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하셨다.

나는 왕할머니와 노는 것이 정말 재밌었다. 나는 왕할머니와 블록쌓기도 하고 점토놀이도 했다. 특히 점토놀이를 하면 왕할머니께서는 점토로 먹음직스러운 떡도 빚어주시고 예쁜 꽃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레 소꿉놀이까지 이어졌는데 왕할머니께서는 내가 차린 밥상을 아주 맛나게 드시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점토놀이를 제일 좋아했다. 그리고 나는 왕할머니께 바느질도 배웠다. 아흔이 넘으셨는데도 바늘에 실 꿰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셨다. 왕할머니께서는 예쁜 한복을 입은 인형도 만들어 주시고, 가방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내가 제일 아끼며 어렸을 적부터 끼고 자는 이불도 감쪽같이 꿰매 주시곤 하셨다.

바느질을 배울 때면 자꾸 바늘에 손을 찌리곤 했다. 그럴때면 왕할머니께서는 ‘호호~’ 하고 입김을 불어주시면서 “어이구, 조심혀. 만날 찢려서 손이 남아나겠나~” 하시며 반창고를 붙여 주시곤 하셨다. 왕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면 늘 너무나 설레었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곤했다. 다음 주면 왕할머니의 제삿날이다. 왕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꼬박 3년이 되었다. 늘 이맘때면 할머니가 너무도 그리다.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하시며 유독 ‘땀이 많은 나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놀다 잠들면 일어날 때까지 부채 바람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아껴 주시던 할머니, 할머니와 점토놀이를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 그리고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 아주아주 많은데..

‘할머니! 얼마 전, <키다리 아저씨> 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의 주인공 주디는 얼마나 편지를 잘 쓰는지 몰라요. 꼭 할머니께 읽어 드리고 싶은데... 별의 별 이야기를 쓴 눈물과 행복이 깃든 편지를 읽으며 저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닌 할머니께 편지를 쓰고 싶어졌어요. 글짓기에서 상을 탄 이야기, 요리를 한 이야기 등을 써서 할머니께 보내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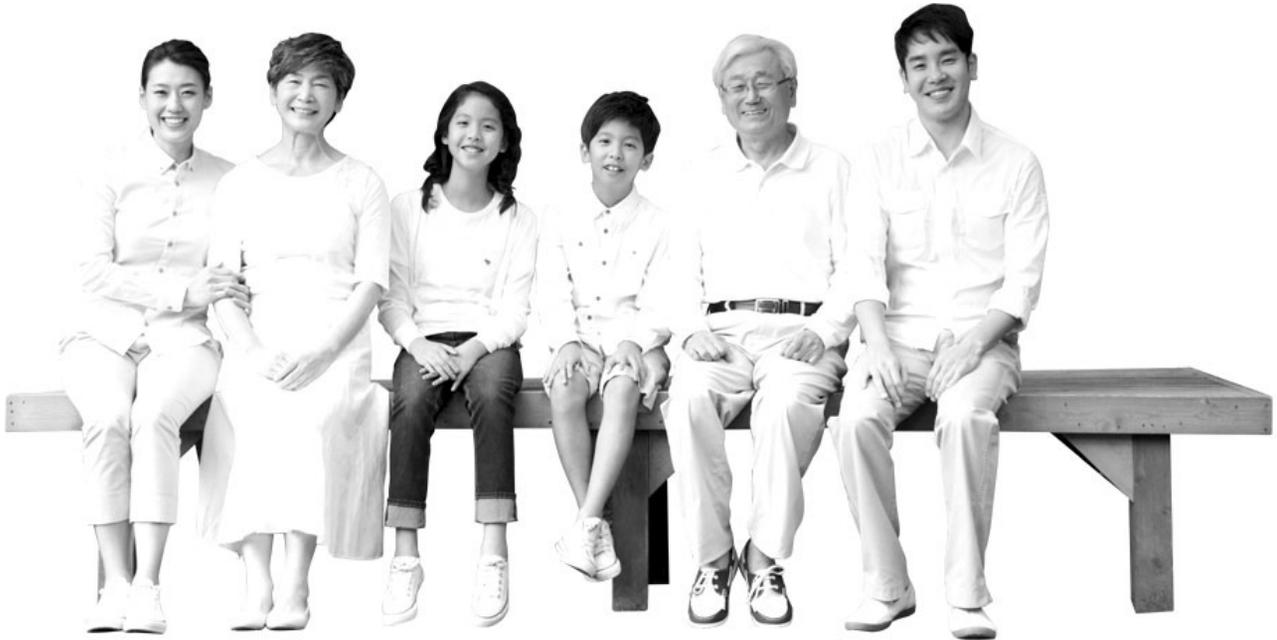




아버지

김 미 나 _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세월의 짐 짊어지고
오늘도 버팀목이 되어 묵묵히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는 잎사귀
한 잎 한 잎 미련 없이 떨구며
더위 먹은 뽕꾸기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
찰없이 지지꾸는 뽕꾸기
은혜 모르고 살기 위해 가지를 꺾고
둥지를 틀어잡아 아픔을 쥐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무더운 햇빛과
사나운 짐승의 위험을 지켜주는
튼튼한 느티나무 한 그루



할머니의 기쁨

박혜령 _ 연무고등학교 2학년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한 후 과일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하며 쉬고 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 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나와 내 동생은 벌써 짐작이나 한 듯 서로 전화 받기를 미룬다. 결국 전화기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람이 전화를 받기로 결정하고 나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는다. 물론 목소리는 어느 때 보다도 부드럽게 말이다. “여보세요.” “아이고, 그래. 혜령이나 헤나냐?” “혜령이에요.” “오, 그래 혜령아, 학교는 잘 다니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엄마한테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할머니가 방금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봤는데, 요새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그렇게 몸에 해롭다고 하더구나.....” 그렇게 몇 분 동안 수화기에 귀를 대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들어야한다는 생각에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할머니는 우리가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과 다르게 우리는 신문, 인터넷에서 이미 그 기사들을 읽은 상태였다. 그렇게 할머니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나면 이제 엄마차례다. 멀리 떨어져 자주 오지 못하는 딸이 걱정스러우신 듯 항상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엄마를 찾으신다. 그러면 엄마는 가족에게 방해가 될까봐 방에 들어가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수다도 잔뜩 떨고 나오신다. 사실 안부 전화를 우리 가족이 드려야 하는 것인데 할머니와는 반대로 된 듯 싶다. 가끔씩은 우리 가족이 먼저 전화를 걸어 드리지 못해서 많이 죄송하다.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한 곳에만 계속 머무르시지 못해서 친구도 없으시고 많이 쓸쓸해하실 것을 생각하니 더 더욱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먼저 전화를 거셔도 손녀들의 목소리를 듣고 걱정해주실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시는 것 같다. 물론 할머니의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는 전화 밖에서도 계속된다. 할머니의 바람은 크지 않다. 그저 다치지 않고, 어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그것 하나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 나지 않고 몸조심해서 명절 때나 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가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이 '효'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건강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만큼 불효는 없을 것이다.

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정말 일품이시다. 명절 때에 할머니 댁에 가게 되면 매끼가 진수성찬이다. 특히 반찬 중에 해산물이 많은데 해산물을 가장 좋아하는 나로서는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항상 조기를 발라서 밥 위에 놔주시고 꼬막도 일일이 까서 숟가락 위에 얹어주신다. 그렇게 한 없이 받아 먹다 보면 밥 한 그릇은 금방 해치운다. 그럴 때 배부르게 먹는 나를 항상 할머니께서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로 쳐다봐 주신다. 가끔씩은 배가 너무 불러 더 이상 먹기 힘들어도 할머니께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꼭 참고 먹을 때도 있다.

내가 정신없이 밥을 먹다가 “할머니, 꼬막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하기만 해도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듯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신다.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나는 이것 또한 크나큰 효도라고 생각한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 물론 비싼 선물이나 용돈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효도는 그 순간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물건이야 쓰고 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반찬이 맛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영원히 잊어버리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매번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 더욱 더 행복한 기분으로 요리를 하실 것이다.





한번은 방학 때 할머니 댁에 갔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께서 깜짝 제안을 하셨다. 할머니께서 수요일 예배 때 내 동생, 나 그리고 사촌동생 3명이 바이올린을 켜고 엄마께서는 플루트로 특송을 하면 좋겠다고 말하셨다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할머니께서 간절히 원하셔서 최선을 다해 연습했다. 할머니께서는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자, 손녀, 딸이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예전에 교회 분 중 한분의 사위들이 나와서 특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척 부러우셨나 보다. 우리가 연주를 끝마치자 할머니는 자신이 연주를 하신 듯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다.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같이 행복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정작 나는 바이올린 연주 같이 조그마한 것 밖에 해드리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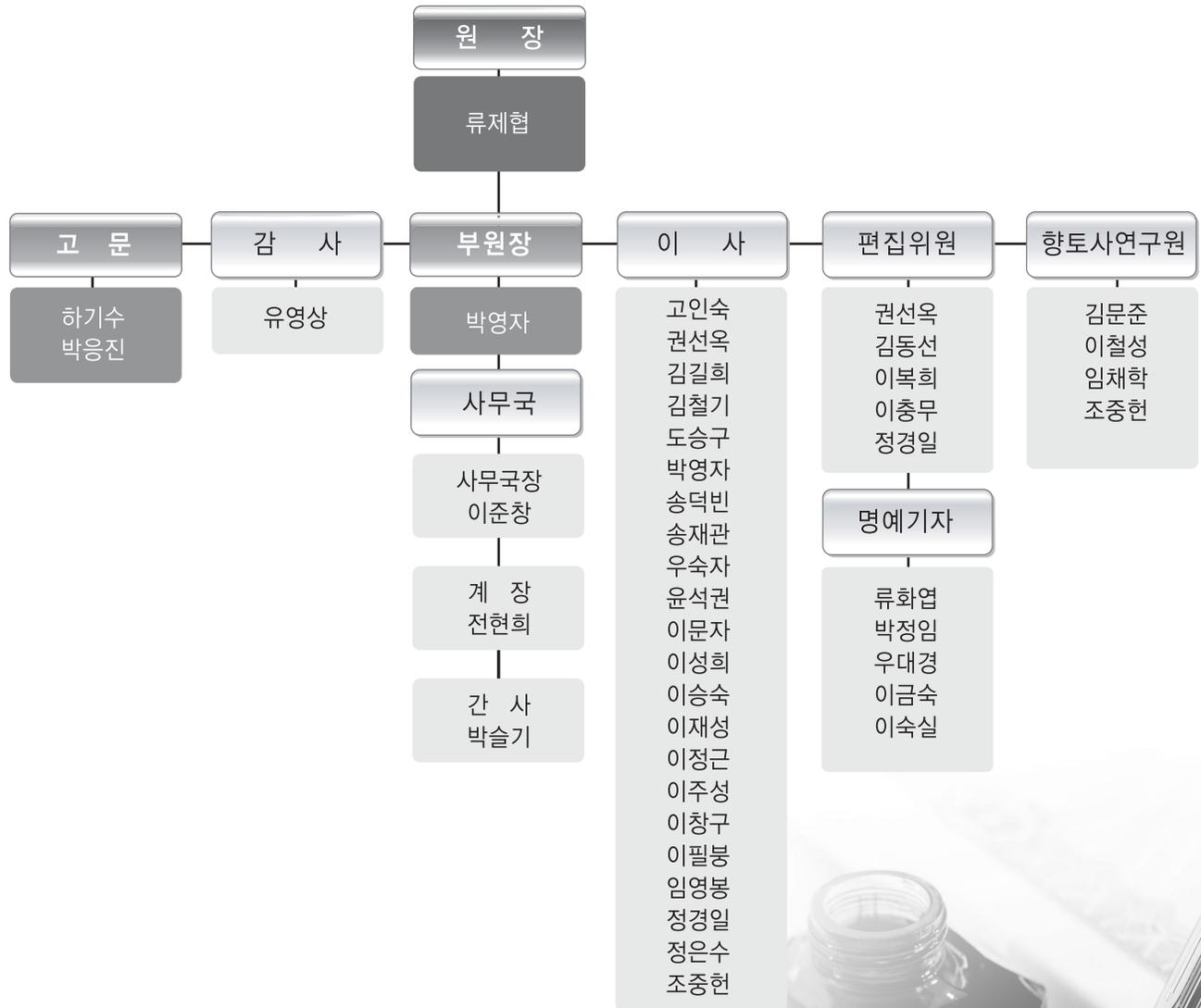
항상 마음속으로는 자주 전화 걸어드리고 방학 때 놀러가서 즐겁게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천까지 옮기지는 못한다. 그런 나를 보면 내가 과연 제대로 된 '효'를 실천할 수 있나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주위 사람들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해 드리는 친구들이 매우 많다. 심지어 친할머니가 아니지만 요양병원에 봉사를 가서 만난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그런 모습들을 모았을 때는 그저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실천에 옮겨야겠다. 예전에 엄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2박 3일로 경주 여행을 다녀오셨던 적이 있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좋은 효의 모범이었다. 사실 엄마께서는 매우 바쁘게 생활하셔서 2박 3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내기가 힘드신 분이다. 하지만 엄마 생각은 좀 달랐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시간이든 돈이든 다 내어 드릴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런 모습을 보며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가족을 꾸리게된 후에도 엄마, 아빠와 함께 효도여행을 꼭 가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내가 가지 않고 부모님만 여행을 보내드려도 될 것이다.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같이 여행을 함으로써 진정한 효도 여

행이 된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사진을 찍고 그 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손도 잡아드리는 사소한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추억이자 효도가 될 것이다. 정도 많고 인심도 좋으신 외할머니께서는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익숙하신 것 같다.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은 반찬을 해오지 못해 미안해 하시고 무언가를 주실 때도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께 돌아가는 것은 많지 않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할머니께 받기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다가 작년에 할머니 생신때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았던 적이 있었다. 엄마께서 사 오신 치즈 케익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뒤에서 나를 꼭 껴안으신 것이다. 그 순간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 치즈 케익 보통 치즈 케익 별반 다를바 없는 평범한 케익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평범한 케익과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가 너무나도 좋으셨나보다.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친할머니만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살아계시는 나에게 잘해드리라고 항상 친구들은 말한다. 지금은 정정하시지만 과연 이 생일 케익도 몇 번이나 사다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릴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역시 효도는 나중에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 같다. 많은 영화와 책에서 보았듯이 돌아가시고 난 뒤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뒤로 미루는 습관을 고쳐 지금 당장 할머니께 인부 전화를 드려야겠다. 내 과거를 생각해보면 나는 과연 할머니께 받은 사랑만큼 효도를 해드렸나 하고 좌송해지기 시작한다. 아마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 정성으로 효도를 해도 부족할 것이다. 할머니는 크나큰 효도를 원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고 할머니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드리는 것 같이 작은, 어찌보면 효도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작은 것일지도 모른다.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남은 생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은 효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것들마저 뒤로 미루고 귀찮아하니 나는 불효막심한 손녀일지도 모른다. 이런 나쁜 습관들을 하나 둘씩 고치도록 노력하여 할머니께 최고의 효도를 해드릴 것이다.



논산문화원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문화행사소개

2013년 1월 ~ 2013년 3월



논산시 공공시설 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Tel. 735-4151, 730-4646)

장 소	내 용	일 시
논산시 공공시설 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65세 어르신 이상 및 장애인 서예 배우기	월 13:00~ 14:50 수 10:00 ~ 11:50 화, 목 10:00 ~ 11:50 수, 금 13:00~14:50
	65세 어르신 이상 및 장애인 한글(초급) 배우기	화, 목 13:00 ~ 15:50
	65세 어르신 이상 및 장애인 한글(중급) 배우기	화, 목 9:00 ~ 11:50
	65세 어르신 이상 및 장애인 풍물놀이 배우기	화, 목 10:00 ~ 11:50
	65세 어르신 이상 및 장애인 판소리·남도 민요 배우기	목 13:00 ~ 14:50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Tel. 730-7713)

장 소	내 용	일 시
충청남도 남부평생학습관	서예 (성인)	화 10:00~12:00
	감성총만! 시낭송	토 10:00~12:00
	풍수지리 (성인)	화 13:00~15:00
	고문진보(고전강독) 성인	화 10:00~12:00
	수채화·유화 (성인기초반)	화 10:00~12:00
	한국화(민화) 성인	토 10:00~12:00

취암동 주민자치방 (Tel. 735-8792)

장 소	내 용	일 시
주민자치방 (청사지하)	민속체조	월, 수 17:00 ~ 18:00
	에어로빅	월, 수 16:00 ~ 17:00
	요 가	화, 목 14:00 ~ 16:00
	댄스스포츠	월 14:00 ~ 16:00 수 13:00 ~ 15:00
	노래교실	목 09:00 ~ 11:00
	풍물교실	화, 목 16:00 ~ 18:00
서예교실 (청사 3층)	서예교실	월, 목 14:00 ~ 16:00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 (Tel. 733-0855)

장 소	내 용	일 시
농업기술센터	생활도자기 도자기 빚기(공주 도예촌)	매월 첫주 화요일
	풍물놀이 (풍물가락 습득 및 연주)	매월 마지막 월요일
	천연염색 (천연재료를 이용한 염색 실습)	매월 넷째주 금요일
	생활공예 (손뜨개, 칠보, 펄프 등 공예실습)	매월 첫주 금요일

논산시 청소년 수련관 (Tel. 730-4892, 4893)

장 소	내 용	일 시
논산시 청소년 수련관 (대상 : 초·중·고등학생)	한국단편소설	화, 금 16:00 ~ 18:00
	우리나라&세계 여러 나라	화, 목 16:30 ~ 18:30
	방학숙제 같이하자~다양한 공예체험	수, 금 14:30 ~ 16:30
	스타 방송 댄스	화, 목 14:30 ~ 16:30
	키크기 성장 농구	화, 목 16:30 ~ 17:20 화, 금 17:30 ~ 18:30
	키가 쑥쑥~ 음악줄넘기	토 0:30 ~ 12:30

『사진으로 보는 논산 100년』 사진 공모

논산의 옛 모습과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통해 지역정서 공유와 애郷심을 고취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논산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합니다. 논산을 배경으로 옛 모습이 담긴 기록물을 소장하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 ~ 2013년 12월까지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사진내용 : 논산을 배경으로 하는 1990년대 이전 사진

- 자연경관 : 산, 강, 자연생태 등 풍경사진

- 관광문화 : 관광명소, 축제, 문화행사, 유적, 세시풍속, 제례 등

- 생활상 : 농촌풍경, 오지마을, 시장, 향토음식, 뒷골목, 옛 건물 등

- 기타 : 인물이 들어간 사진이라도 논산의 생활·풍경을 회상할 수 있는 사진, 논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각종 행사시 촬영한 사진 등 총망라

◆ 사진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별도 규격 없음)

· 사진명, 촬영년도, 장소, 사진설명, 인적사항을 기재한 접수표 부착

→ 접수표 양식(논산문화원 홈페이지 자료실)

◆ 기타사항

저작권 : 입선작 이상의 사진은 문화원이 무상으로 전시, 사진집 발간 사업을 수행 하며, 사진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보상권 : 수상작과 관련한 보상권 분쟁은 제출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

심사제외 : 논산과 무관한 사진, 합성사진 등

입선최소 : 본 공모전에 유사작 및 동일작,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작을 제출하여 입상, 입선이 될 경우 입상을 취소함

◆ 사진활용

접수된 모든 사진은 디지털 작업후 반환하며 2014년 심사 시상하고, 전시회 개최, 사진집 발간 예정

◆ 접수처 및 문의

· ☎ 030-030 충남 논산시 시민로 270 (내동 279-4) 논산문화원 (☎ 041-730-4632/732-2395)

· 홈페이지 : <http://nonsan.cul21.or.kr> · 이 메 일 : nonsan2395@kccf.or.kr



1956년 1월 10일 강경경찰서(현재 논산경찰서) 신청사 입사기념

회원모집

논산문화를 사랑하고 논산문화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논산문화원 회원으로 모십니다. 현재 200여명의 회원 여러분께서 논산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 문화원 회원이 되시면..

- 총회 및 문화원 제반 활동 참여
- 문화원이 발행하는 각종 발간물 및 자료 제공
- 문화원 답사 등 모든 문화행사 참여
- 문화원 개최 음악회, 시낭송회, 연극 등 우선 초청

◎ 회원접수 : 연중, 수시접수

◎ 회비 : 1년간 30,000원

◎ 연락하실 곳 : 논산문화원 T.041)730-4632, 732-2395. F.041)732-2394

2012년도 회비 납부회원 현황 - 2012년 12월 18일(가나다순)

강난희, 강석동, 강선자, 강용은, 강원희, 강재섭, 강희경, 강희산, 강희춘, 고계순, 구중현, 권길자, 김경란, 김경중, 김경희, 김귀례, 김규환, 김명희, 김무길, 김미수, 김미숙, 김미홍, 김민기, 김민수, 김복수, 김부예, 김선광, 김선원, 김수현, 김순길, 김양진, 김언금, 김영대, 김영만, 김영미, 김영수, 김영숙, 김용배, 김용식, 김용희, 김원배, 김윤진, 김재권, 김정순, 김정자, 김정희, 김중기, 김진태, 김창배, 김태갑, 김태용, 김태일, 김학수, 김현숙, 김형례, 김희대, 김희숙, 나영숙, 남춘택, 도만중, 류동석, 류익선, 류제현, 류지찬, 류화엽, 박금옥, 박노수, 박두성, 박명규, 박명식, 박명철, 박병두, 박복수, 박봉임, 박상구, 박선아, 박순예, 박승용, 박원중, 박종민, 박찬무, 박춘화, 박희성, 백승철, 백영숙, 백용숙, 서기우, 서명선, 서승남, 서정국, 서평석, 석부자, 소성섭, 손희선, 송기영, 송현복, 신형철, 양정민, 오복경, 오완식, 우대경, 유경숙, 유금자, 유 범, 유병선, 유병숙, 유신환, 유인성, 유향덕, 윤금옥, 윤도병, 윤삼영, 윤상숙, 윤석환, 윤 숙, 윤여익, 윤완식, 이강해, 이광남, 이광택, 이규환, 이근하, 이금숙, 이길구, 이명순, 이상구, 이선경, 이성명, 이숙실, 이숙자, 이신영, 이영임, 이영자, 이옥범, 이옥예, 이용희, 이우진, 이은성, 이응구, 이재선, 이재순, 이재윤, 이재향, 이정노, 이정미, 이정숙, 이정자, 이준행, 이찬주, 이창윤, 이충호, 이환홍, 임성옥, 임영택, 임예순, 임종진, 임창희, 임현숙, 전광정, 전기풍, 전 미, 전삼주, 전승현, 전영규, 전인순, 전일갑, 정건일, 정길영, 정석현, 정창기, 조경희, 조규갑, 조금숙, 조성일, 조옥희, 조정아, 조정자, 조효숙, 지상택, 지춘희, 진용민, 진중자, 최경화, 최문섭, 최선중, 최정욱, 하길례, 하복생, 하영수, 한광수, 한순이, 한현규, 현춘자, 홍성복, 황기화, 황인준

※회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셔야 정회 원임을 유념해주시고 주소 또는 전화번호(휴대폰) 변경시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회비납부 계좌 : 농협(논산문화원) 423-01-020592

논산문화 원고모집

향토문화 발전의 길잡이가 될 계간지 『논산문화』가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으로 정성껏 발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훌륭한 계간지로 만들어 보고자 편집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원고를 모집합니다.

계간지 『논산문화』는 논산문화 창달을 위해 논산시민 또는 논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인사들과 함께

논산문화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모집내용

· 시, 시조, 수필, 콩트, 생활수기, 내고장소식, 비평, 논단 등 장르 제한 없음.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더 좋은 편집이 됩니다)

※소정의 원고료(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모집기간

매월 30일까지.

◎ 보내실 곳

충남 논산시 시민로 270(내동 279-4번지) ☎ 320-030 (논산문화원)

T. 041)730-4632, 732-2395. F. 041)732-2394.

전자우편 : nonsan2395@kccf.or.kr, happy0107@hanmail.net



사진 - 강경화교학교 교사 사택 : 이준창(논산문화원 사무국장)

2013년 논산문화원이 하는 일

1. 신년교례회 (1월 2일)

- 각급 기관 및 단체장, 문화계 인사와 시민참석,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2. 향토사료 조사 수집

- 옛사진 수집

3. 지역문화 사회교육 활동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
- 충남정신발양사업 "논산 문화유적 답사"

4. 지역 문화 행사

-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 한마당(2월 23일)
- 제7회 논산시 가족백일장 및 제3회 애향사생대회(5월 중)
- 전통혼례 및 성년식(5월 중)
- 제14회 어르신 장기대회(6월 중)
- 제8회 논산시 청소년 문화제(7월 중)
-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9월 중)
- 제24회 논산시 서예회화대회(9월 중)
- 제3회 논산향시(9월 중)
- 독서의달 행사 독후감 공모전(9월 중)
- 시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자리(10월 중)

5. 발간사업

- 계간지 『논산문화』
- 『논산문예』 제21집
- 『논산 금석문 대관2』
- 『예학의 고장 논산』 청소년 서적

함께 있으면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논산문화원, 다양한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생활에너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사업

복지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2013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 한마당

주최  논산문화원

■ 일시 : 2013년 2월 23일 오후 2시 ■ 장소 : 논산천 둔치

